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 호 4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거관 잡지

제 4 호 (173)

1960년 4월 15일

차　례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오늘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 문화적 제 과업의 수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더욱 높이 발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급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이 변천된 환경과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그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전 당은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와 이와 관련하여 하신 일련의 교시들에 기초하여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당 단체들의 조직 지도자적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체계적으로 연구 체득하고 실천함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교시들을 다음과 같은 체계로 발취하여 수록한다.

1. 간부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2.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3. 모든 부문에서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4.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하여,
5. 전체 당원들을 다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1 간부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간부 사업의 중요성과 그 기본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간부는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힘으로 되며 결국 모든 사업의 운명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67페지).

《…간부를 잘 료해하며 좋은 간부를 배치하며 간부들을 잘 교양하는 것을 우리 당의 기본 사업으로서 집행해야 한다. 이 사업만 잘 되면 다른 사업은 다 여

기에 따라 오게 된다. 이것이 만병 통치의 약이며 제일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1958, 5, 11.《량강도 내 당 및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 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 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문화 혁명도 문제 없이 성과적으로 할 수 있다. 간부 사업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특히 오늘에 와서 간부 사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당 단체들은 과거 민족 해방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혁명 간부들을 위시하여 조국 해방 전쟁에서 단련된 사람들과 검열된 로동자 출신 간부들로써 간부 대렬을 부단히 강화하며 새로 자라나는 젊은 인재들을 대담하게 선발 등용하며 그들의 발전을 주의 깊게 지도하여야 한다»(1956, 4,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물론 혁명을 오래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은 우리 형편이 엄중하고 더 가혹할 때, 우리 나라에 검은 구름이 덮이여 캄캄할 때 혁명의 홰'불을 든 사람들이다. 우리 간부 대렬에서는 오랜 혁명가들 특히 반일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 감옥에서 고생하며 투쟁한 사람들이 응당 핵심이 되여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당은 100만 당원, 100만의 혁명가를 가지게 되였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주, 자본가들과 투쟁을 전개하여 그들의 토지와 공장을 몰수할 수 있었으며 인민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우리 조선에서 계승하고 그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여야 한다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당이 그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지금 각급 당 및 정권 기관들에서 일하는 간부들과 현재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혁명가들의 뿌리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도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혁명 투쟁을 잘 한 사람들이 우리 당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런 사람들을 교양하며 자기의 핵심으로 묶어 세울 줄 알아야 한다»(1958, 5, 11. 《량강도 내 당 및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간부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기간 공업의 중심 지대에서 오래 일하고 있는 로동자들을 많이 제발 등용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로동자 출신 간부들은 조직성과 혁명적 전개력이 강하고 용감하며 제국주의와 자본가들을 미워하는 정신이 높고 혁명의 난관에서 동요하지 않으며 혁명에 충실하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로동자나 빈농 출신의 간부들을 등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자본가나 지주의 착취를 제일 많이 받았으므로 착취 제도를 증오하는 사상이 강하고 일을 더 잘 하겠기 때문이다»(우와 같은 문헌).

《우리 당은 우리와 같이 싸우는 인테리들을 절대 신임한다. 물론 그들에게 출신 성분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동요성, 자유주의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은 해방 직후부터 인테리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개조하여 왔으며 그들과 손목을 잡고 대담하게 그들을 당에 받아 들였고 당에 간부로 등용하였으며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까지 같이 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다. 지금도 이 정책은 변함 없다»(우와 같은 문헌).

《간부 사업에서의 가족주의와 지방주의적 경향은 종파주의를 낳게 하는 직접적 근원으로 된다. 누구든지 다 간부 사업에서 지방주의와 가족주의적 경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우와 같은 문헌).

김 일성 동지는 간부를 선발 배치함에 있어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료해 사업을 선행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간부 정책에서는 반드시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한 사람, 당 사업, 혁명 사업에서 전개력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제발하는 것이 좋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당의 간부 선발의 표준은 첫째로 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만세는 안 불러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피를 흘릴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우와 같은 문헌).

《…어떤 동무들은 왕왕 말하기를 그 사람이 당에는 충실한 사람인데 일은 할 줄 모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멍텅구리이다.

우리가 말하는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그저 호인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의 정책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의 정책을 옳게 집행할 줄 알며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옳지 못한 것과는 항상 비

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 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말한다》(1958, 4, 29. 《전국 사법, 검찰 부문 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전개력과 활동성이 강한 것을 말한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그가 당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그의 능력이다. 제일 좋기는 당에 충실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이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간부의 정치적 표징을 과소 평가하고 실무적 기능에 편중함으로써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을 약화시키며 당 사업의 정치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현상들을 더욱 철저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간부들을 적당히 배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매개 간부들의 장점과 결점을 상세히 연구하며 간부들의 기능을 연구하며 어떠한 사업에서 그 간부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68페지).

《간부를 료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출신 성분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과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결함은 무엇인가, 사상 의식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한다. 중앙에서나 도에서 간부 사업을 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간부들을 료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당은 더 튼튼하여질 것이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머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일하려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어느 공장 지배인의 지식 수준은 어떠하며 그 사람의 사상 수준과 당성은 얼마나 높으며 당 명령과 당 결정은 어떻게 집행하며 능력은 얼마나 있으며 군중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 사람이 사업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확실치 않는 진술이나 출신 성분, 남반부 관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지 사업에서 그가 당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를 보아야 한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간부의 성분이라는 것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생활의 변천에 따라 부단히 발전하는 것이다.

과거의 성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정부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그들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야가 프로레타리아적으로 개조되고 있으며 실지 사업에서 검열되였으며 현재 자기 맡은 사업을 성실하게 집행한다면 그들에게 또 무엇을 더 요구하며 추구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간부들을 문건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사람의 성분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곤난할 때 우리와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가, 또는 도중에서 도망질할 사람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성분을 보면 그가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며 따라서 그가 혁명을 따라 올 수 있다든가 또는 혁명을 배반하고 반혁명의 편으로 넘어 갈 수 있다든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간부의 성분을 보는 것은 그가 어떤 사상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적 여독을 빼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옛날 문제를 자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따질 때도 있다. 어떤 때에 가서 따지는가?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즉 그가 아직까지도 교양이 잘 안 되여서 우리 당을 반대하고 나설 때 따진다…

좋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야 왜 낡은 문서를 캐겠는가?》(우와 같은 문헌).

《…간부 료해와 평정 사업을 책상 우에서 주관적,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군중들의 의견을 존중히 하는 데 있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김 일성 동지는 간부를 배치한 후에는 그를 인내성 있게 교양하고 육성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등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도와 주고 교양해야 한다.

많은 로동자 출신 간부들을 등용해 놓고도 교양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적고 사상적, 정치적 단련이 어리니까 얼마 못 가서 잘못 걸려 과오를 범하며 지도적 지위에서 또다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간부를 배치하고는 늘 그 사람이 잘못되지나 않는가 근심해야 하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담화도 하고 강습도 주고 또 직접 내려 가서 그 사람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료해하고 사업 방법도 배워 주고 사상 의식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누구를 물론하고 당 생활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오유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생활을 기피하는 경향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이와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게 하며 당성이 강한 당원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1958, 3, 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간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점은 간부들을 부단히 조동하는 것인바 이것은…간부들의 장성에 있어서 막대한 해를 주고 있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69페지).

《…간부들의 부단한 이동을 퇴치하고 간부들을 한곳에 오래 동안 정착시킬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장성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파악하고 새로 등용하여야 한다》(1951, 11, 1. 《당 단체들의 조직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 선집, 제 3권, 323페지).

《각급 당 단체들은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양성하며 교양하는 사업에 심중한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1951, 11, 1. 《당 단체들의 조직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 선집, 제 3권, 322~323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당의 핵심을 육성하며 그 대렬을 확대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 열성 분자들과 세포 핵심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대렬을 더욱 튼튼하게 하며 우리 당과 군중과의 련결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유일한 대책이다.

…그러므로'당 중앙과 각급 당 단체들은 계획 있게 수만명의 당 열성적 세포 핵심을 양성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할 것이며 그 사업에 전 당이 동원되여야 한다》(1951, 11, 1. 《당 단체들의 조직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 선집, 제 3권, 322페지).

《우리 당내에는 시초부터 공산주의자들만이 들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한테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도록 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의 대렬을 더욱 확장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내에서 핵심을 양성하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당원들을 더욱 많이 양성하라는 것이다》(1958, 5, 11. 《량강도 내 당 및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실천에서 검열된 동무들을 핵심으로서 인정해야만 우리가 사업에서 주관주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사상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그의 실천에서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사상을 가진 자들로써 자기 핵심 진지를 더욱 견고하게 꾸려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2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정치 사업의 선행이란… 어떤 혁명 과업이 나오면 해당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 정책을 깊이 인식시키며 그의 집행을 위한 방도를 똑바로 세우고 분공을 조직하고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군중과 진지하게 상론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1960, 2, 18.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정치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곧 당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사업이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인민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창조적 사업이다.

어떤 혁명 과업을 수행하든지 그 사업의 목적과 의의, 그의 수행 방도와 전망에 대하여 당원들과 군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제기된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정치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당을 강화하지 않고 군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지 않고는 경제 사업을 할 수 없다. 당의 의지 대로 군중을 발동시키는 정치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튼튼히 하고 당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군중의 의견을 청취하며 어떠한 경우를 물론하고 군중의 구체적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그들이 당이 지시한 방향으로 자각적으로 발동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구호들을 인민의 숙망의 표현으로 접수하도록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이 사업 방법은 대중 속에서 전체 우리 사업의 기본적 방향으로 되여야 한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84~385페지).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인민 정권 기관과 기타 사회 단체 내에 있어서 당 사업은 해당 기관 일'군들에게 그 사업의 정치적 목적을 가르치며 그들을 추동하며 그들을 자각적으로 발동케 함으로써 그 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행정 일'군들과 함께 행정적 깜빠니야에만 동원되고 행정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1954, 4, 1. 《당 및 정권 기관 내 일부 일'군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당 단체는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그의 뒤꼬리를 따라 다녀서는 안 된다. 당 단체는 당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고 사업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당 정책의 집행에로 인도하는 정치적 지도 기관으로 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군 당 위원장이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나서서 춤 추면 일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당 일'군이 자기의 본신 사업을 할 시간도 짜낼 수 없게 된다.

… 당 조직원이 지배인을 가로 탈 바에야 처음부터 그에게 지배인을 시킬 것이지 무엇 때문에 지배인을 또 따로 내겠는가?…》(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며 그의 관철을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이 선거한 것이며 당의 로선은 당원들의 총의를 대표한 당 대회에서 정한 것이다. 중앙 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매 계단마다 그에 적응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은 아래로부터 올라 온 의견이다. 그것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며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정책과 결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당원의 의무이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우선 당 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연구하고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잘 알도록 해석 선전하여야 한다.

당 정책과 결정을 한결같이 잘 알아야만 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리당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100만 당원이 모두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당 정책을 잘 안 연후에 지도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지도원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 중앙 위원회의 방법을 따라 집중 지도라 하여 하부에 내려 가는데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리여 당의 방침과는 위반되게 일을 저지르고 만다》(우와 같은 문헌).

《…당 정책을 잘 모르면 10일도 좋고 한 달도 좋으니 알 때까지 강습을 조직하여 잘 알게 하여 가지고 지도를 내보내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인민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침투시키는 기본 방법은 설복시키며 확신시키는 방법이다.

당은 자기의 정책을 근로 대중에게 항상 해석하여 주며 이 정책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근로 대중 자체가 우리 당의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열성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86페지).

《…대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요구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기 위해서는 군중과 같이 일하며 군중과 같이 호흡해야 한다.

…

…우리 당 지도원들이 농촌에 나가서 마당도 쓸어 주고 일도 같이 하고 쉬는 짬에 담화도 하고 나쁜 점은 고치도록 이야기해 주고 이와 같이 군중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연 나쁜 놈도 발견해 낼 수 있고 옳지 못한 경향도 찾아 낼 수 있고 군중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1958, 11, 20.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두 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시킬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의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 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 사업 방법이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당 단체들은 어느 측면에도 치우치지 말고 경제 사업과 정치 사업을 항상 결부시키며 당 사업의 평가는 경제 계획 실행 결과로써 평가할 것이며 경제 계획 실행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당의 옳바른 조직 정치 사업으로써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우리의 적지 않은 당 단체들과 지도 간부들은 당 기관들의 지도적 사업의 기초로 되는 당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할 데 대한 원칙 즉 당 사상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경제적 과업의 수행에로 고무 추동하며 조직 동원함으로써 당 기관들 앞에 나선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실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1954, 4, 1. 《당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당 사업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당 단체들의 사업의 중심은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들에서 일하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

그렇다고 해서 당 단체들이 경제 사업으로부터 물러 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경제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는 곧 우리의 혁명 과업이다. 우리가 당을 강화하고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것도 구경은 이 혁명 과업을 잘 실행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농촌 당 단체나 공장 당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생산을 떠난 다른 사업은 없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생산을 떠난 그런 혁명 과업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들이 생산 문제를 직접 취급하는 것은 혁명 수행의 의무로 되는 것이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김 일성 동지는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는 당 정책을 연구하고 그를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그들을 조직하여 경제 과업을 집행하도록 하며 그 사업이 잘 집행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을 감독하며 잘 하는 것은 장려하고 잘못되는 것은 고쳐 주는 데 있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작업 공정이 어떻게 되여 나가며 생산이 어떻게 잘 되여 가는가 하는 문제들은 당의 일상적 관심과 지도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책임 일'군들이 자동차를 타고 공장을 돌아 보거나 혹은 도 당 위원회나 군 당 위원회 회의에서 생산 문제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지도 사업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회의에서 토의 결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문제의 집행을 조직하며 그 집행 정형을 지도 검열하는 데 있다》(1956, 4, 7. 《평북도 당 대표회에서 진술한 연설》).

《당 기관들의 임무는 경제적 임무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정치적으로 보장하여 주며 당의 력량을 적당히 포치하며 매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조직함에 있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62페지).

《경제 사업은 당이 홀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혁명 과업이지만 례컨대 군 당 위원장이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경제 사업을 하되 군 당 위원장은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춤 출 것이 아니라 군 당 집행 위원회에서 당 중앙의 정책과 로선에 근거하여 방침을 세우고 분공을 주며 실행 정형을 검열하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군 당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반드시 집행 위원회를 열고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군 당 집행 위원회에서 볼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조그마한 문제는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을 주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군 인민 위원회는 군 당의 지도 밑에서 사업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양보하면 당은 자기의 령도적 기능을 잃어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가 생기고 나쁜 놈들이 당을 가로 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군 당에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 사업의 첫 출발에 불과하다. 이 방침을 직접 집행해야 할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 속에 당 중앙의 로선과 군 당의 방침을 철저히 침투시키는 사업이 이에 곧 뒤따라야 한다.

다음에는 과업 집행을 위하여 간부를 배치하고 력량을 동원하며 집행 과정을 검열하며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열하는 데는 그 사업을 지도하는 사람과 담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아래에 내려 가서 당원들과 담화하고 군중들과 담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 담화를 통하여 당원들을 교양하는 한편 사업 진행 정형을 료해할 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경제에 대한 당적 통제는 또한 당 정책에 위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군들에게 미리 신호를 주며, 그들로 하여금 사업 집행에서 결함을 알게 하며, 그들 자신이 결함을 퇴치하도록 조언을 주어 그들이 당 정책을 옳게 집행하도록 내심 있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1957, 5, 11. 《함북도 당 및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이와 같이 군 인민 위원회나 경제 기관 일'군들이 당이 준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항상 분주히 돌아 가게 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당 일'군들은 시간을 얻어 당 내부 사업으로 돌아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의 정책과 로선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도 있고 강연을 준비할 수도 있고 담화를 통하여 당원들을 교양할 수도 있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업에서 선후차를 정확히 가리며 중심 고리를 찾아 내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력량을 분산시켜 가지고는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다》(1959, 9, 4.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한 나라의 혁명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공장의 생산이나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계급 투쟁에 있어서나 자연과의 투쟁에 있어서나 적아 간의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고 중심 고리를 찾아 내여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투쟁 방법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의 기본이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생산이나 기본 건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업에서 당면 과업의 중심을 틀어 쥐고 거기에다 힘을 집중하여 그것을 해결한 다음 다시 다음 과업의 중심을 찾아 내서 또 이 새로운 과업을 해결하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사업에서의 중심 고리는 개인의 주관적 욕망으로써는 도저히 찾아 낼 수 없다.

중심 고리를 포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과 모든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모든 투쟁에 있어서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전쟁에서도 아군의 력량을 정확히 장악할 뿐만 아니라 적군의 병력과 무장을 잘 타산해야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다.

경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재, 자금 및 로력과 해야 할 사업 대상을 옳게 대비해야 1년 동안에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량을 타산할 수 있다》(1959, 9, 4.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다음 호에 계속)

박 종 순 편집

레닌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레닌의 사상은 조선에서 승리하고 있다

김 창 만

4월 22일, 우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대중의 위대한 수령이며 스승인 웨. 이. 레닌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레닌의 위대한 영상은 전 세계 근로자들과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자본의 기반에서 근로자들을 해방하며 지구상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영원히 청산할 데 대한 레닌의 불멸의 사상은 날이 갈수록 인류 력사 발전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준 자본주의 제도는 그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는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첨예하게 하고 있다. 만약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확립이 식민지 체계의 형성을 동반하였다면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은 예속된 인민들의 해방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를 동반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순종하던 시대는 영원히 과거의 일로 되고 말았다.

피압박 인민들의 이 세계사적 투쟁의 선두에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기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의 불멸의 기'발이 휘날리고 있다. 웨. 이.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민족 식민지 문제에 대한 정연한 학설을 창설하였다. 최근 반 세기 이상의 인류 력사는 레닌의 위대한 학설의 불패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력사는 피압박 대중의 제국주의 기반에서의 완전한 해방은 오직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감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때문에 레닌주의는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수억만 인민들의 기치로 되였으며 레닌은 이들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가장 친근한 벗으로 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력사 밖에서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 오던 동방 인민들은 《동면에서 깨여 광명, 운동, 투쟁으로 넘어 갔다》(전집, 제 18권, 514페지). 위대한 인민 중국의 창립, 조선, 월남, 몽고 등의 제국주의 기반에서의 해방과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아세아, 아프

리카에서의 일련의 민족 독립 국가들의 출현 등은 제국주의의 안전한 후방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식민지 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주의는 현대 인류에게 더는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되였으며 그 완전한 청산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현재 인류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 ❊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는 확고부동하게 승리하였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들의 위대한 창조적 힘을 온갖 낡은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무한한 대로를 열어 놓았다.

지금부터 6년 전만 하여도 우리 나라는 문'자 그대로 페허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도시와 농촌의 면모는 얼마나 몰라 보게 되였는가! 우리 나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발전하였다.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공업의 기술적 락후성과 기형적 구조는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우리는 오늘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공업의 심장을 이루고 있는 기계 제작 공업은 이미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제작하고 있다.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선진 국가들의 수준을 급속히 따라 잡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최근 년간에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변혁들이 일어났다. 과거에 령세한 개인농들의 바다를 이루었던 농촌에 오늘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경리인 협동 조합 경리가 지배하고 있다. 농촌에서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전기화에 있어서도 작년 말 현재로 전체 리의 90%에 전기가 들어 가는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당면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공업의 지원하에 급속히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 3~4년 내에 기본적으로 완성될 현실적 전망이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앞으로 일대 비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기초가 이루어졌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모든 생활 령역에 있어서 급격한 전변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이른바 하루가 20년에 맞먹는 위대한 비약의 시기에 살고 있다. 낡은 사회의 질곡에서 해방된 근로 인민들은 착취 계급에 못지 않게, 더욱 훌륭히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 인민의 정권하에서 비로소 우리 나라는 일찌기 자기 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번영을 가져 오고 있다. 오직 선발된 특종의 사람들만이, 착취 계급들만이 마치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근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역 속에서 다만 지배의 대상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부르죠아지의 《낡고 불합리하고 무식하고 추악한 구역질나는 편견》은 생활 자체에 의하여 론박되였다.

이렇듯 오랜 세기를 두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한갖 꿈이였던 착취 없는 행복한 사회, 우리 인민의 가장 우수한 아들딸들이 그 실현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사회주의 사회는 우리 세대에 와서 비로소 현실로 되였다.

오늘의 승리를 달성하기까지의 조선 인민의 력사는 간고하고 영웅적인 투쟁의 계속이였다.

조선 인민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가장 빛나는 전통은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관련되여 있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부르죠아지가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웨. 이.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지는 온갖 민족 운동의 초기에 있어서 자연히 운동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며 아직 반동을 반대하여 인민과 함께 나가게 된다. 그러나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비상히 제고되고 투쟁이 더욱 격렬하여질 때 그들은 동요를 일으키며 대중의 혁명적 기세에 겁을 집어 먹고 적과 타협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바로 3. 1 운동에서 민족 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섰던 부르죠아지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길을 걸었다.

레닌주의는 피압박 인민들의 완전한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은 오직 로동 계급이 그 투쟁을 령도하는 경우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조선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전 력사는 바로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인도, 중국, 조선…의 로동자, 농민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공동의 해방 사업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오직 그때에야만 비로소 착취자들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전집, 제 31권, 156페지)라고 한 레닌의 교시는 조선의 청소한 로동 계급에 대하여 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었으며 그들에게 고무적 힘을 북돋아 주었다.

조선의 로동 계급은 그 발생 당초부터 류례 없이 가혹한 식민지적 착취와 민족적 압박을 받았다. 일제는 《최신의 모든 기술적 발명과 순전히 아세아적인 고문과를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적 방법으로 조선을 략탈》(우와 같은 책 544페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로동 계급을 더욱 혁명화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정치적 세력으로서 투쟁의 선두에 서게 하였다.

근로 인민의 혁명적 앙양에 기초하여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된 것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사건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보급, 로동 운동과의 그것의 결합은 결코 평탄한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년대의 투쟁은 일반적으로 로동 운동 초기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일련의 제한성을 면치 못했다. 특히 종파 분자들이 청소한 당의 지도부에 들어 앉아 있었던 사실은 그 후 로동 운동 발전에 심대한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들은 사실상 조선 혁명 발전 행정에서 제기된 기본적인 리론적, 전략 전술적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였으며 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 진출을 옳게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한편 이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극심한 종파 싸움에 골몰하였으며 당을 적들 앞에서 조직 사상

적으로 무장 해제 당한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은 그 유년기부터 종파의 침식을 받게 되였으며 이들의 해독적 행위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였다.

조선의 로동 운동이 직면한 이 엄중한 사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며 인민들 앞에 유일하게 옳은 투쟁의 길을 밝히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조선 인민의 반일 혁명 투쟁은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 섰다. 맑스—레닌주의는 비로소 조선 현실과 옳게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항상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혁명적 활동을 위한 지침이며 맑스주의의 보편적 진리가 소여 국가의 특수한 조건과 옳게 결부되는 경우에야만 혁명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전술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이 전술의 특수성의 원인과 조건과 그 총화를 심사숙고》하며 볼쉐위크당의 경험을 리용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신과 의미와 교훈을 적용할것》(전집, 제 32권, 410페지)을 간곡히 교시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에 관한 레닌의 학설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조선 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였으며 구현되였다. 레닌주의는 조선 혁명의 확고한 전략 전술적 기초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반제 반봉건적 성격을 천명하였으며 일제와 또한 그와 야합한 친일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적 력량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이 확립되였으며 로동 계급의 지도하에 로농 동맹이 공고화되였다.

웨. 이. 레닌이 예견한 바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반제 민주 혁명 세력이 결성되였다.

1936년 5월에 조직된 조국 광복회는 바로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애국적 력량을 망라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였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은 당시의 조선 사회의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된 맑스—레닌주의적 강령이였으며 민주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조선 혁명의 모든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30년대 투쟁의 특징은 그것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최고 형태인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무장 투쟁으로 발전한 데 있다. 무장한 적이 무장으로 혁명 력량을 탄압하는 데 대하여 인민들이 폭동으로, 무장으로 반항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였다.

장기간의 간고한 무장 투쟁 행정에서 수 많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였으며 앞으로 창건될 당의 조직적, 사상적 기초를 닦아 놓았다.

항일 무장 투쟁은 처음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종일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진행되였다.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의 존재는 항일 빨찌산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이 시기를 회고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레닌의 불패의 사상이 구현된 위대한 쏘련은 무장 빨찌산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힘의 원천으로 되여 있었다》(김 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쏘련을 옹호하자》라는 구호 밑에 일제 군대에 의한 쏘련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 *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괴멸과 조선의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은 조선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으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앞에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와 반동 간의 력량 대비에서 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우세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선 전역에 걸쳐 인민들 자체의 손으로 인민 주권 기관이 창설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통일적인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조선 혁명은 계속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고 전개되였다. 미제 침략 군대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 위원회를 강제적으로 해산시켰으며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권리를 탄압하였다. 우리 나라 혁명 전도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조선 인민은 일제를 대신하여 나타난 자본주의의 원흉인 미제를 상대로 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문제의 복잡성은 새로운 적과 대치하여 투쟁하는 조건하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 당을 새로 창건하며 당 대렬을 확대 강화하며 인민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는 데 있었다. 이때 혁명 대렬에 끼여든 우연한 동반자들은 혹은 우경 투항주의적 혹은 《좌경》 기회주의적 언사로써 대렬 내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며 《서울 중심》을 부르짖고 당 창건을 반대하여 나섰다.

오직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허물 수 없는 위신으로 하여 우리는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반석같은 기초 우에 우리 당을 창건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남북의 분렬에 의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북조선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닦을 데 관한 정치 로선을 제시하였다.

조선이 과거에 식민지 반 봉건 사회였으며 락후한 농업 국가였다는 사정은 새 사회 건설에서 추가적으로 일련의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여 놓았다. 동방의 공산주의자들을 향해 한 다음의 레닌의 말은 해방 직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해서도 향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여기에서 당신들 앞에는,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이때까지 제기된 일이 없었던 그러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즉 당신들은 반드시 공산주의의 일반적 리론과 경험에 의거하며 구라파의 나라들에는 없는 그러한 특수한 환경을 참작하면서 그 리론과 경험을, 주되는 군중이 농민이고 자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기의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

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그러한 환경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전집, 제 30권, 182페지).

이리하여 해방 직후 우리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 잔재와 봉건적 제 관계를 청산할 민주주의적 혁명 과업 수행에 착수하였다. 여기서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의미에서의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될 수 없었다.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준비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의 불가피한 추세이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은 계속되는 혁명 발전 과정의 두 단계이며 서로 만리장성으로 구별되여 있지 않다. 이로부터 낡은 류형의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련의 혁명적 시책들이 실시되였으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무제한한 발전이 아니라 그것의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리용하며 동시에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레닌의 계속 혁명 사상을 우리 나라의 조건에 적용한 당의 이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남북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에로 이행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을 제기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놀라게 하며 결국 인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근본적 오유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그 누구의 희망이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라는 것을 리해하지 못한 데 있다.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1946년에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서 조선 로동당이 창건되였다. 대중적 정당—조선 로동당의 창건은 로동 계급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당의 군중적 지반을 확대하고 인민들 속에서 그 향도적 역할을 일층 제고시켰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 선 조선 인민의 수령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한 기초 우에서 우리 나라는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 섰다.

3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의 생활에서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모든 곤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다. 《그 민족들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놀랄 만한 기술과 군사 기술을 투쟁에 리용하는 구라파의 압박자들의 위력이 아무리 불패의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피압박 민족들이 수행하는 혁명 전쟁은, 그것이 수백만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을 실지로 각성만 시킨다면》,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을 내포》(우와 같은 책 172페지)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들어 와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데 대한 총 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계획에서 중심적 자리를 차지한 문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시, 농촌 경리의 집단화,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 문화 혁명의 수행 등이다.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대규모적인 기계적 공업을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로 요구한다. 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요한 특징은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확대 재생산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없으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없다. 레닌이 중공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는가는 다음의 그의 말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중공업을 구원함이 없이는, 그것이 부흥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공업도 건설할 수 없으며 또 공업이 없이는 도대체 우리는 독립 국가로서 망해 버린다》(전집, 제 33권, 528페지).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기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는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의 경제적 원조를 민족 경제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기간적 산업 특히 중공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이 원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우리는 푼전을 아껴 가면서 기계 제작 공업, 금속 공업, 화학 공업, 전기 공업, 석탄 공업, 건재 공업 등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켰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경공업과 농업을 홀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부문들은 호상 의존하며 제약하고 있다. 특히 전쟁 직후 우리 나라 형편에서 우리들이 경제 발전의 이 합법칙적 련계와 요구에 엄격히 순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경공업은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적 축적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농업은 공업의 원료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업 제품에 대한 광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만약 어느 한 부문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반적인 인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과거 쏘련이 단독으로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부득이 경공업을 일정하게 희생하면서까지 중공업 발전을 강행하던 력사적 시기와는 다른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이며 형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에 의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길은 없었다. 1953년에 우리 당이 제시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로선은 바로 이상과 같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에 대한 당의 이 기본 로선은 공업 발전의 모든 문제에서 관철되고 있다. 당은 우리의 이 로선을 실현하면서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창설하며 현대적 기술과 함께 수공업적 기술을 적극 리용하며 생산의 량적 장성과 함께 제품의 질 제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최근 시기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공작 기계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적지 않게 충족시켰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적 장비를 일층 강화하였다. 작년 말까지 계획 외에 약 1만 3,000 여대의 공작 기계가 생산되였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계 제작 공장들이 몇 해 동안 생산해야 할 량이다. 이 운동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을 획기적으로 촉진시켰으며 한 계단 더 높여 놓았다.

대중 소비품 생산에서 지방 공업이 담당한 역할은 매우 크다. 지방 공업은 지방에 아직 잠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 탐구 리용함으로써 식료 가공품, 일용품 및 기타 공업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 주고 있다. 지방 공업의 발전은 농촌에서 공업의 진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청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당의 정확한 공업화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닦아졌으며 공업은 계속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959년에 우리의 공업은 실로 53%의 전례 없는 장성을 가져 왔으며 전쟁 전 1949년 수준을 6.1배로 릉가하였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과거 수십년 혹은 100년 이상을 두고 건설해 온 현대적 공업을 우리는 5년 혹은 10년 동안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과업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명 정세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과도기의 가장 어려운 혁명적 과업의 하나이다. 토지 개혁 이후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농 경리 형태는 아직 농업 생산력을 종국적으로 해방시키지는 못하였으며 농촌에서 빈궁과 락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미제 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3년 간의 전대미문의 파괴적 전쟁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전후 시기에 들어 와 파괴된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함에 있어서 개인농 경리 형태는 더욱더 그 제한성을 발로하였다. 농촌에서 로력, 축력 및 농기구는 심히 부족되였다. 식량 사정은 매우 어려웠다.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락후한 농업의 사이에 불균형이 조성될 현실적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전시에 현저히 증가된 빈농민 문제는 절박하게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분산되고, 령세하고, 수공업적 기술에 그 기초를 둔 개인농 경리는 농촌 경리 앞에 가로 놓인 이 모든 난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다. 공업과 농업이 두 개의 상이한 경제적 기초에서 발전하는 모순은 반드시 해결되여야 하였다. 이리하여 전후 시기에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서 제기되였다.

1953년 8월에 소집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농업 협동화 방침이 제기되였다.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아직 농업 생산력이 미약하며 기술적 개조가 진행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농업 협동화는 시기상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은 농촌에서 생산력이 발전할 때까지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생산 관계를 개조하여야 하며 이 새로운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생산력을 비할 바 없이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일찌기 웨. 이. 레닌은 10월 혁명 직후에 제국주의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로씨야의 농촌 경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협동 경리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만일 그러한 분산적인 소경리로부터 공동적 경리에로의 이행이 실현된다면 로동 생산 능률은 2배 3배로 제고될 것이며 농업과 인간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로동을 2배 3배 절약하게 될 것이다》 (전집, 제 28권, 433페지). 우리의 현실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농업 협동화의 기본 원칙들을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옳게 적용하는 문제는 협동화 운동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협동 조합의 제 형태, 규모, 협동화의 속도 등의 구체적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은 엄밀히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출발하였다.

당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레닌의 자원성 원칙이 준수될 것을 요구하였다.

초기의 경험적 단계를 거친 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협동화 운동이 대중적 단계에 들어 섰다. 협동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빈농민들이였다. 이들은 농촌에서 우리 당이 의거한 기본적 세력이였다. 농업 협동 조합의 경제적 기초가 튼튼해짐과 관련하여 중농들은 결정적으로 협동 경리에 망라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부농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이 협동화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조합에 망라시켰다.

국가는 새로 조직된 협동 경리에 대하여 물질—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조직—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사업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집단화는 불과 4~5년의 극히 짧은 기간 내에 매우 순조롭게 완성되였다. 수백만 농민들의 생활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 온 이 혁명적 변혁이 이처럼 승리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도 레닌의 협동화 사상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그리고 능숙하게 적용한 우리 당의 협동화 정책이 정확하였기 때문이다.

사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도 우리는 승리하였다. 소상품 생산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하여 그 최후의 가장 뿌리 깊은 기반을 허물어 놓았다. 당은 소상품 경제는 자본주의의 온상이며 시시각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를 낳는다는 레닌의 교시에 기초하여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도시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나 기타의 과도적 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당은 이들을 협동화하는 방법으로 개조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또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다. 우리 나라의 개인 자본은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 일본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에 의하여 완전히 구축 당하였으며 그 비중과 역할이 극히 미미하였다. 이 반면에 해방후 곧 사회주의적 요소는 공업을 비롯한 중요한 인민 경제 부문들에서 그 명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사'적 요소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당은 일찍부터 경제적 령역에서 세금, 가격, 대부 및 기타 일련의 경제적 공간을 리용하여 사회주의 진지를 계속 확대하고 그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전후 시기에 모든 전선에서 사회주의적 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개조는 지체

될 수 없는 것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 상공업자들은 협동 로동을 통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복무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1957~1958년 시기에 과도기의 기본적 모순인 《누가 누구를》 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투쟁은 사회주의의 승리로써 완결되였다.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이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해방 후 15년 간에 실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에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몽매화 정책에 의하여 혹심하게 유린당한 우리의 민족 문화는 오늘 당의 정확한 문화 정책에 의하여 소생되였으며 찬란히 개화 발전되고 있다.

우리 당이 해방 당시부터 가장 통절하게 느껴 온 문제는 민족 간부에 대한 문제이다. 일제의 기반하에서 조선 사람들은 기술과 과학을 배울 길을 잃고 있었다. 당은 해방 직후부터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여 가면서 당과 로동 계급에 충실한 근로 인테리 대렬을 육성하는 사업에 온갖 힘을 다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고 무용한 죽은 지식을 잔뜩 소유》하게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젊은 세대는 이를 교육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그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위하여 훈련》하였으며 《부르죠아지에게 리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평온과 안일을 방해하지 않는 유용한 종복이 되도록 교육》(전집, 제31권, 341페지)하는 낡은 교육 제도는 청산되고 그 우에 새로운 선진적 사회주의 교육 제도가 확립되였다. 우리 당 교육 정책의 기본은 교수 교양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학생들을 단순한 지식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당의 기술자로, 붉은 전문가로 양성하며 교육과 생산 로동,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는 데 있다. 민족 간부의 육성 사업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당의 첫째가는 관심사였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깊은 후방에서, 산간 벽지에서, 토굴 속에서 우리의 학교들은 한시도 자기의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쏘련과 형제 국가들을 향해 배우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 인민들의 육친적 배려 속에서 선진적 과학 기술을 습득하였다. 공화국 정권하에서 육성된 수천수만의 젊은 기술자와 과학자들—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은 이미 자기의 손으로 현대적인 공장들을 훌륭히 움직이고 있으며 과학 연구 기관과 학교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1958년에 7년제 의무 교육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 당 교육 정책에서 달성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각종 학교에서 무료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새 간부의 육성과 함께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적극 포섭하며, 그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일'군으로 만드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이 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성과이며 승리이다. 레닌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문화는 허공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쌓아 놓은 모든 우수한 문화 유산을 비판적으로 섭취하고 개작한 기초 우에서 형성된다. 우리의 문학 예술이 오늘 인민들로부터 그처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국외에서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는 깊은 인민성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쌓아 온 모든 우수한

인민적인 유산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 시대에 와서 소중히 보호되며 계승되며 개작되며 발전되고 있다. 여기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복고주의적 경향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지난 날의 우리 민족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언어들과 형식들은 오늘 약동하는 사회주의적 현실을 그 내용으로 하여 더욱 찬란히 발전하고 있다. 인민이 창조하였으며 인민의 감정과 정서와 요구를 표현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에 우리 문학 예술이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이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그가 가지는 공산주의적 당성이다. 공산주의적 당성——이것은 문학 예술에서의 인민성의 최고의 표현이다. 자기의 계급적 본성을 엄폐하기에 급급한 부르죠아 문화와는 반대로 우리는 자기의 문학 예술이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침습을 견결히 반대하며 생활에서 나타나는 낡고 부패한 것을 무자비하게 불사르며 우리 현실에서 매일 매시 창조되고 있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것을 노래하며 새 사회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 사업은 당이 우리의 문학 예술계에 부과한 영예롭고도 숭고한 전투적 과업이다.

문화 혁명——이것은 인민들의 정신 생활에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로동자, 농민의 정권을 수립하며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몰수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보다 몇 배 더 복잡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절대 다수의 근로 인민들을 자본주의의 정치 사상적 영향하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선진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재교양하는 문제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낡은 사회가 수백년 수천년을 두고 주입시킨 낡은 사상 독소와 인습은 우리들의 전진 도상에서 매 걸음마다 우리의 발목에 매여달린다. 비약적인 사회주의 건설 속도는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개괄한 기초 우에서 생산력 발전과 로동 생산능률 장성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노는 결정적 역할에 대하여 리론적 정식화를 내렸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의식의 요인이 노는 적극적 역할은 더욱 제고된다. 오늘 우리는 자체의 현실을 통하여 선진적 사상이 대중을 장악하자 그것이 물질적 힘으로 전변된다는 맑스—레닌주의 명제의 위대한 진리를 더욱 절실히 체험하고 있다.

당은 일찍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사상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국토가 량단되여 있으며 남반부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하에서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그들이 우리 당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은 그것이 우리 혁명 선배들과 선렬들이 쌓아 올린 혁명 전통에 대한 교양과 서로 배합되여 진행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일'군들에 대한 사상 교양은 근기 있고,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은 산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 혁명의 과거를 알며 행복한 오늘이 있기 위하여서는 지난 날 선배들이 얼마나 고된 싸움을 하였으며 얼마나 고귀한 피를 흘렸

으며 많은 희생을 하였는가를 아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곳에는 부르죠아 사상이 강화된다. 적들은 우리 인민의 정치 사상적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과거 반당 종파 분자들이 혁명을 반대하기 위한 흉악한 책동에서 우선 우리 당의 사상 체계를 와해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하자고 덤벼든 것이 우연하지 않다.

사회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높은 교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경제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에서도 과거의 락후와 침체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학습 의욕은 비상히 높다. 《전 당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구호에 호응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일차적 과업으로 알고 있으며 기술을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다하고 있다.

새 사회를 창조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그것에 상응한 생활 양식과 도덕적 풍모를 가진다. 자기 시대를 다 산 자본주의의 말세기적, 괴상하고, 썩어빠진, 허풍에 부풀어 오르는 미국식—서구라파식 생활 양식과 그 류행병의 침습, 그것의 사소한 발현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근로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하고, 검박하고, 겸손한 풍모와 생활 양식을 견결히 고수하며 발양시켜야 한다.

❇　❇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우리 인민은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레닌이 그처럼 증오하던 제국주의 기반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끊어지고 레닌의 사상에 따라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근로 인민의 국가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레닌주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나 이 승리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우리의 전진 도상에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사회는 미리 규정된 어떤 공식에 따라 아무러한 난관도 없이 건설되여 가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발전 속에서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요구들이 제기되는 것은 모든 발전 과정의 합법칙성이다.

우리 나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산력은 그것에 상응하여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과 상부 구조의 개별적 환절들을 부단히 개선하며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발전의 이러한 객관적 모순과 요구들을 적시에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은 그것이 바로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매 계단에서 성숙된 문제들을 제기하며 해결하는 데 있다.

농촌 경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종래의 농업 협동 조합 규모는 발전된 현실에 적응하지 않게 되였다. 현대적 농기계를 대량적으로 도입하며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며 사회주의 집단 경리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리 단위로 조합을 통합하며 리 인민 위원회와 조합 관리 기구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공업 관리 체계의 개편은 오늘 거대한 규모로 확장된 우리의 공업 발전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제기된 문제이다.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 도 경제 지도 위원회의 조직, 중앙적 관리 기구의 개편 등은 공업에 대한 지도를 현장에 더욱 접근시켰으며 대중을 생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망라시킴으로써 생산력의 보다 강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이루어 놓았다.

특히 최근 시기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에 대한 현지 지도 사업은 당 및 국가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 오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전변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사업 방법과 지도 형식을 개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교시하였다.

인민 경제 지도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며 인민 대중의 힘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생동하는 창조적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 자신의 창조물이다》(전집, 제 26권, 360페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 당 중앙이 취한 일련의 혁명적 조치는 근로 인민들 속에서 미증유의 로력적 및 정치적 앙양을 불러 일으켰다. 전야에서, 공장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당이 호소한 금년도 완충기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기 위해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당 단체들, 모든 당 및 국가 일'군들이 레닌적인, 참으로 인민적이며 창조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무장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당 생활에서, 당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오고 있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은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오늘 조선의 남북에 조성된 두 현실은 사회주의는 승리하며 자본주의는 멸망하는 인류 력사 발전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적 착취뿐만 아니라 리 승만 도당의 학정과 봉건적 제 관계의 구속 등 2중 3중의 기반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극도의 테로 폭압 정치와 심각한 경제적 파탄은 인민들을 더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끌었다. 최근 시기 남반부에서 벌려지고 있는 모든 사태는 인민들이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며 지배층은 종전의 방식 대로는 통치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에, 혁명적 위기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해방 후 15년 간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낸 당연하고 불가피한 귀결이다. 사회 발전 법칙은 남조선 현실에서도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 오늘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낡은 사회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어찌하여 남조선 인민만이 미제 고용병들의 군화 바닥에 그대로 말없이 짓밟혀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남반부에서의 사태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다. 북반부 근로자들의 매개 로력적 성과는 직접적으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통하고 있다. 자기의 로력 투쟁으로써 우리는 혁명 발전 행정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그의 승리를 앞당기며 앞으로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종국적 승리를 약속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는 전체 인민의 깨뜨릴 수 없는 정치 사상적 단결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 속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우리 당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단합되여 있다. 레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단결된 힘으로써 우리는 혁명 도상에 가로 놓인 모든 난관을 박차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리론적 무기

《레닌 전집》 번역 출판 완료에 제하여

금번 조선 로동당 출판사는 레닌 탄생 90주년을 경축하여 이미 진행하여 오던 레닌 전집 제 4판의 번역 출판 사업을 38권까지 완료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를 쥐여 준 것으로서 우리 나라 정치—사상 생활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한 위업에 전 생애를 바친 위대한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에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당에 관한 학설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였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론과 전략 전술을 작성하였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오늘 전 세계 진보적 인류는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휘황한 미래를 내다 보면서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진 도상에 가로 놓인 어떠한 풍상도, 가시덤불도 겁내지 않는다. 레닌의 학설이 그들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출판된 레닌 전집 제 4판에는 레닌이 전 생애에 걸쳐 집필한 대소 3, 600 여편의 로작이 수록되여 있다.

제 1권부터 제 17권까지에는 주로 레닌의 당 창건을 위한 활동이 반영되여 있다. 여기에는 《〈인민의 벗〉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싸우는가?》, 《로씨야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제 과업》,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보 전진 이보 퇴각》,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 민주당의 두가지 전술》,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등의 저작들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당 창건에 관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직 이외에 다른 무기는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당의 통일 단결을 위한 조직 사상적, 정치적 및 리론적 기초를 천명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당이 로동 계급의 조직적 전위 부대로서 그가 프로레타리아트의 향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려면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과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당 건설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고수하는 것은 당의 불패성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담보로 된다.

제 18권으로부터 제 26권까지에는 주로 사회주의 혁명 준비를 위한 레닌의 활동이 반영되여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닥쳐 오는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국가와 혁명》, 《맑스주의와 폭동》, 《구라파 합중국의 구호에 대하여》 등 일련의 로작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정치적 및 조직적 준비 사업이 수행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단계를 심오하게 분석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주의 리론을 가일층 발전시켰다. 레닌에 의하여 새롭게 천명된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리론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을 혁명 승리를 위한 명확한 전망과 방도로써 무장시켰다.

제 26권으로부터 제 33권까지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공고히 하고 무력 간섭을 물리쳤으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한 레닌의 활동이 반영되여 있다. 여기에 수록된 《쏘베트 주권의 당면 과업》,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반역자 카우츠키》, 《위대한 발기》,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청년 동맹의 제 과업》, 《협동 조합에 관하여》 등 일련의 로작들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지침으로 되는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 계획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공고화, 사회주의 공업화, 농업 집단화 및 문화 혁명을 지적하였으며 그 해결 방도를 제시하였다. 레닌은 특히 《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적 기초로는 농업까지도 재조직할 수 있는 대기계 공업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오직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그 중에서도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해서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제 34 및 35권은 서한 및 전문집이며 36권이하는 보충권인바, 37권은 가족들과의 서한집, 38권은 《철학 노트》이다.

위대한 레닌의 저작에는 철학, 정치 경제학 및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 등 사회 발전 법칙, 프로레타리아 계급 투쟁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기본 문제들이 천명되였다.

고도의 과학성과 혁명성의 결합의 모범인 레닌의 학설은 온갖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맑스주의를 새로운 조건에 적용하여 혁명 운동의 새로운 경험으로 풍부화한 인류 문화의 최고봉을 이룬다.

레닌의 리론적 로작들은 국제 로동 운동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을 천재적으로 총화하였으며 맑스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제국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불가피성 및 세계 혁명 전망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레닌의 학설은 전 세계 근로자들과 모든 피압박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레닌과 레닌의 학설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레닌은 일제 침략하에 짓밟힌 조선 인민에 대하여 무한한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야수적 략탈을 불타는 분노와 증오로써 규탄하였다. 레닌은 1920년 말에 당시의 조선 형편을 특징 지으면서 《두 제국주의 국가, 일본과 미국을 들어 본다면 이들은 전쟁을 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제패를 위해서 략탈권 쟁탈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최신의 모든 기술적 발명과 순전히 아세아적인 고문과를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적 방법으로 조선을 략탈하고 있다》(전집, 제 31권, 544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의 저서는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후 우리 나라에 급속히 보급되였다. 민족 문제에 관한 레닌의 저서를 포함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레닌의 지도하에 진행된 국제 공산당 문헌들이 전파되였다.

레닌은 피압박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결합은 프로레타리아 혁명 승리의 필수 조건이며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의 제 인민의 해방을 위한 옳은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해방 투쟁의 전략 전술의 기본 문제들에 대한 레닌의 학설은 우리 민족 해방 투쟁에서 소부르죠아적 민족주의 경향을 극복하고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을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그 투쟁에 명백한 정치성과 목적 지향성을 부여하였다.

《위대한 레닌의 사상의 서광은 험악한 식민지 통치의 암운이 우리 조국에 무겁게 덮여 있던 그 때에 그 암운을 뚫고 비치여 주었다. 이 서광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밝혀 주었다》(김 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일제 침략을 반대하는 고난에 찬 해방 투쟁의 불'길 속에서 레닌의 충실한 제자들이 육성 단련되였는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우리 민족 해방 운동에서 레닌주의의 기치는 더욱 높이 휘날리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레닌의 학설은 우리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였으며 이 때로부터 우리 민족 해방 투쟁에는 정확한 로선이 수립되고,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가 이룩되였으며, 혁명 승리를 위한 군중적 지반이 축성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령도된 혁명 투쟁은 바로 레닌의 학설을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행정이다.

레닌 당에 의해 육성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은 당 건설에 관한 레닌의 학설에 엄격히 의거하여 각종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당을 강력하고 세련된 당으로 공고 발전시키였다. 동시에 대중을 쟁취하여 복잡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레닌의 정연하고 완성된 학설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확고 부동한 지침으로 되였다. 전후에 조성된 우리 나라의 주객관적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레닌의 학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수립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은 우리의 온갖 가능성과 력량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였으며 급속한 사회 발전을 보장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의 협동화에 관한 레닌적 리론에 립각하여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제한 개조하는 정책으로써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협동화를 완성하였다.

어제'날의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이 모든 성과의 근저에는 레닌의 학설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 당의 향도적 지도적 역할이 놓여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 고지로부터 새로운 보다 높은 고지에로 이행하기 위한 위대한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우리의 혁명은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하며 쏘련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건설 경험을 진지하게 창조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근로자들의 리론 실무 수준이 현실 발전의 수준에 상응할 때에라야만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현 시기 《전 당이 꾸준히 학습하자!》라는 구호 밑에 학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레닌 전집의 번역 출판이 완료된 것은 우리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맑스—레닌주의 학습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된다.

레닌의 학설은 필승불패의 학설이다. 이 학설의 매 구절은 고귀한 씨앗이 비옥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떨어져 자기의 위대한 열매를 맺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레닌의 학설은…그가 자기의 훌륭한 전 생애와 천재를 이바지하여 건설하려던 그런 찬란한 새 사회를 오늘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의 향도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우리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이 학설을 부단히 학습함으로써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더욱 제고하며, 이 학설을 지침으로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더욱 성과 있게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박 도 수

웨. 이. 레닌의 《철학 노트》에서의 맑스주의 철학의 창조적 발전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위대한 수령인 웨. 이. 레닌의 탄생 90주년을 앞두고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그의 저서《철학 노트》(전집, 제 38권에 수록됨)가 처음으로 번역 출판되였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보다 심오한 소유를 위하여 전 당이 학습하고 있는 이때에 《철학 노트》가 번역 출판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철학 노트》는 중요한 자료를 담은 열 개의 꼰스뻭트와 기타 중요한 일련의 소론문들과 단편들이 들어 있는 철학 저서이다.

맑스와 엥겔스의 로작 《신성 가족》에 대한 꼰스뻭트(1895년에 집필), 헤겔의 저서 《론리학》, 《철학사 강의》 및 《력사 철학 강의》에 대한 꼰스뻭트(1914~1915년), 라쌀의 저서 《에페소스의 난해한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의 철학》에 대한 꼰스뻭트(1915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형이상학》에 대한 꼰스뻭트, 포이에르바하의 저서 《라이프니츠 철학의 서술, 분석 및 비판》에 대한 꼰스뻭트(1914년 말 혹은 1915년 초), 《헤겔의 변증법(론리학)의 요강》에 대한 주석, 《변증법에 관한 문제》라는 단편적 소론문 및 기타가 그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을 비롯한 일련의 전문적인 철학 로작들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철학 노트》는 다른 철학 로작들과는 달리 발표나 출판을 예정하고 집필한 것은 아니다. 레닌은 주요한 철학 서적들을 학습하면서 체계적으로 자기의 철학 노트에 꼰스뻭트를 하였으며 그때그때에 머리에 떠오르는 사상들을 기록해 두였던 것이다.

이것이 레닌이 서거한 후 몇 해 지나서 그 자신이 필기해 둔 그대로 출판되였다.

레닌은 《철학 노트》를 맑스와 엥겔스의 저서 《신성 가족》에 대한 꼰스뻭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제 1차 대전 초기(1914~1916년)에 집필하였다.

이 시기로 말한다면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 선 세계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전반적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던 때이며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배태되고 있던 때이다.

변천된 새로운 력사적 환경은 프로레타리아 당의 정책에서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낡은 투쟁 형식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새 환경에 적응하게 프로레타리아 당의 전략과 전술을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로동 계급을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전투에로 조직 동원할 것이 요구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 국제당의 기회주의적 수령들과 로씨야의 멘쉐위크들은 변천된 력사적 조건들을 리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국주의 시기의 프로레타리아트 투쟁의 새 임무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기회주의적, 비변증법적 견해와 정책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위한 새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여기에서 레닌은 맑스주의 철학 특히 유물 변증법의 연구가 리론-실천적으로 극히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제 2 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 로씨야의 멘쉐위크들의 부당한 견해를 폭로하고 제국주의 시기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새로운 임무를 밝히고 그 투쟁의 새 형식을 강구할 력사적 임무가 레닌 앞에 제기되였다.

새로운 환경의 모든 특성을 옳게 참작하는 유물 변증법적 태도로써만 로동계급 당의 새로운 임무를 정확히 규정해 줄 수 있었다. 따라서 맑스주의 변증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각종 기회주의와 절충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시기의 로동계급 앞에 제기되는 혁명 과업의 성과적 해결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력사적 사정은 레닌으로 하여금 철학 연구에 몰두하게 하였는바 《철학 노트》는 그 산물의 일부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단계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적응하게 맑스주의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맑스주의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화하였다. 이에 있어서 《철학 노트》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우리는 《철학 노트》에서 맑스주의 철학을 새로운 내용으로 더욱 풍부히 하고 있는 수많은 새로운 철학 사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한 철학적 문제들의 그 어느 것에서나 레닌의 독창적 사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맑스주의 철학의 새로운 레닌적 단계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레닌은 자기 혁명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맑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의 가일층의 발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철학 노트》에서도 유물 변증법과 변증법적 론리학이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물 변증법적 방법과 그의 창조적 적용만이 정치에서, 당의 전략 전술의 작성에서 새로운 력사적 시기의 특성을 옳게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레닌은 《철학 노트》에서 유물 변증법을 중심 문제로 연구하게 되였다.

레닌은 유물 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유물 변증법은 《현실에 대한 온갖 태도와 접근의 무수한 뉴안스(매개 뉴안스로부터 전일체로 성장하는 철학 체계)를 가진 **생기있고** 다면적인(무한히 증대하는 측면을 가진) 인식으로서의 변증법》(510페지)이라고.

레닌은 맑스주의 변증법을 연구와 인식의 방법으로서 그 범위를 훨씬 넓히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변증법의 새로운 측면들을 개척하였다.

레닌은 모든 철학 문헌들을 읽으면서

특히 포이에르바하와 헤겔의 저서들에 대하여 많은 꼰스뻭트를 작성하였는바 그것은 독일 철학이 맑스주의의 원천의 하나이기 때문이였다.

레닌은 특히 헤겔의 저서들에 대한 꼰스뻭트들에서 맑스주의 변증법과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의 호상 관계 문제를 해명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따라서 헤겔에 대한 꼰스뻭트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헤겔이 자기 변증법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는 그의 주요 저작 《론리학》에 대한 꼰스뻭트이다.

이 꼰스뻭트들에서 철학에 대한 레닌의 당적 태도와 헤겔 철학의 반동적 측면에 대한 그의 비판의 비타협성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동시에 레닌은 그의 변증법에 포함된 합리적 알맹이들을 밝혀내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헤겔의 변증법에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관한 학설을 가장 긍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대립물에 관한 심오한 해석을 주고 있는바 그의 위대한 공적은 유물 변증법의 진수로서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이 노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해명한 데 있다. 만일 《철학 노트》의 중심 문제가 변증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레닌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거기에서의 중심 문제는 모순에 관한 문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관한 문제이다.

그는 《철학 노트》에서 변증법의 핵심, 본질이 바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관한 학설이라는 사상을 정식화함으로써 변증법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의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대립물의 본질과 대립물의 호상 련계를 옳게 리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대립물의 통일의 상대성과 그 투쟁의 절대성에 관한 레닌의 명제이다. 《대립물의 통일(합치, 동일성, 합성)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과도적이고 상대적이다. 호상 배제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 운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다》(507폐지).

이렇듯 발전의 원천으로서의 모순에 관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관한 문제가 《철학 노트》에서 가장 상세히 해명되였다.

맑스주의 변증법 연구에서 이룩한 레닌의 위대한 공적은 과학으로서의 변증법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그 기본 측면들을 밝힘으로써 변증법, 인식론 및 론리학의 변증법적 통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거기에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일찌기 변증법을 자연, 사회 및 인간 사유의 가장 일반적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도 인식의 변증법에 대한 문제, 론리학의 문제는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었다.

그 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부르죠아 철학은 인식론에 매달렸다. 부르죠아 철학의 특징은 존재에 관한 과학과 인식에 관한 과학과의 분리, 종래의 소위 존재론과 인식론, 론리학과의 분리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자로서의 레닌 앞에 철학의 이 두 부분의 통일——객관 세계의 발전 법칙과 인간 의식에서의 그 반영의 불가분적 통일, 객관 변증법과 주관 변증법의 통일, 존재론과 인식론의 통일을 론증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레닌은 변증법의 법칙을 객관 세계의 법칙으로서 론증함과 동시에 사유, 인식 자체의 법칙이라는 것 즉 사유의 법칙과 범주는 자연, 사회의 발전의 합법칙성의 반영이란 것을 보여 줌으로써 변증법은 객관 세계에만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사유 과정에도 존재하며 작용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다.

레닌은 《철학 노트》에서 변증법과 인식론, 론리학은 동일한 과학의 호상 불가분적으로 련결된 세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맑스가 변증법과 인식론 및 론리학의 통일, 일치에 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고 인정하면서 《철학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맑스는 〈**론리학**〉(특별히 쓴)은 남기지 않았으나 〈자본론〉이라는 **론리학**을 남기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충분히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론〉에서는 론리학, 변증법 및 유물론의 인식론 |세| 가지 말이 필요 없다…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이 하나의 과학에 적용되여 있다》(446~447폐지).

레닌이 여기에서 세 가지 말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변증법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리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레닌은 그 3자의 유기적 통일을 강조했을 뿐이다.

레닌은 인식론으로서의 유물 변증법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유물 변증법을 인식론과 론리학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레닌의 교시는 맑스주의 변증법의 발전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주의 변증법 발전에서 매우 귀중한 기여로 되는 것은 레닌이 《철학 노트》에서 연구한 객관적 진리의 변증법적 인식 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레닌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객관적 진리 인식의 로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생생한 직관으로부터 추상적 사유에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실천에로**——이것이 **진리** 인식의, 객관적 실재성의 인식의 변증법적 로정이다》(222폐지).

레닌은, 전체 인식 과정의 기초이며 우리 개념의 정당성 여부를 검열하는 규준이며 인간 인식, 활동의 추동력이며 《결절점》으로서의 실천이 가지는 특별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레닌은 리론적 계기와 실천적 계기, 리론과 실천이 인식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면서 《**실천은**(**리론적**) **인식보다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의 우점 뿐만 아니라 직접적 현실성의 우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84폐지)라고 썼다.

맑스주의 변증법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서 강령적 의의를 가지는 변증법에 관한 사상은 《변증법에 관한 문제》에서도 심오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소론문에서 레닌은 변증법의 제 문제에 대한 자기 연구의 결과를 압축된 형태로 개괄하고 있는바 이는 맑스주의 변증법 학습에 있어서 귀중한 문헌의 하나로된다.

이 이외에도 레닌의 《철학 노트》에는 철학의 다른 중요한 부문들인 력사적 유물론과 철학사에 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상들이 들어 있다. 또한 이 책에서의 변증법과 변증법적 론리학의 제 문제에 대한 레닌의 사상은 자연 과학을 포함한 전체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다 아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기술,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생활에서도 사회주의적인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변혁과 혁신의 시대로 불리우는 오늘의 이러한 천리마 시대처럼 우리 지도 일'군들이 유물 변증법의 원리들과 방법으로 무장할 필요성이 긴절하게 제기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는,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 특히 유물 변증법을 심오하게 연구 체득함으로써 당 정책을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철학 노트》가 번역되여 나온 것은 그 출판의 의의를 한층 더 크게해 주고 있다.

《철학 노트》에 대한 진지한 학습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이며 다른 모든 고전들과 더불어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구현한 당의 정책》(김 일성)을 연구 파악함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림 종 봉

남조선에서 력사적 변혁은 불 가 피 하 다

세계에 류례 없는 살인적 폭압과 협잡 속에 리 승만 도당이 날조한 《3. 15 선거》를 계기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마침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 투쟁에 궐기하였다.

마산 시민들이 높이 든 항쟁의 불'길은 한 점의 불꽃이 료원의 불'길로 타오르듯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 청주와 전주, 광주와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계속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통치 기반은 문'자 그대로 밑뿌리로부터 무너져 가는 정치적 위기의 절정에 달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노도와 같은 인민-대중의 투쟁을 막아 보려고 《비상 계엄령》까지 펴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대량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면서 최후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태 발전은 그들의 어떠한 발악도 남조선 인민들의 세찬 투쟁 기세를 꺾을 수 없으며 자기들의 반동 통치를 더는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는 광범한 계층은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잡자》, 《학원의 자유를 달라》, 《언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달라》고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하라》, 《썩은 정치 물리치라》고 웨치며 리 승만 통치 제도를 뒤집어 엎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이 영웅적 봉기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하에서 15년 간 엉키고 서린 분노의 폭발이며 증오에 찬 심장으로부터 터져 오른 불'길이다.

마산 시민들의 봉기는 그것이 바로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대변한 것이였기 때문에 이를 신호로 하여 투쟁은 남조선 전 지역에 걸쳐 그처럼 빨리, 그처럼 맹렬하게 파급되였던 것이다.

극도로 당황망조한 리 승만 도당이 미제의 사촉하에 평화적 시위를 총검으로 진압하는 만행을 감행하게 되자 격분한 시위자들은 폭동에로 넘어 갔다.

특히 4월 19일 서울에서 전개된 대규모적인 시위에서는 군중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결사적인 투쟁으로 로획한 무기를 가지고 괴뢰 군경과 시가전을 전개하였으며 《자유당 본부》, 《반공 회관》, 괴뢰 《국회 의사당》을 비롯한 수십 개소의 경찰서, 파출소 등을 습격 파괴 소각하고 리 승만 도당의 아성인 괴뢰

중앙청과 《경무대》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였다.

그들은 《주한 미 경제 협조처》를 습격 파괴하고 흉악한 살인 전범자인 맥아더의 동상을 처부시려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리 승만 《정권》을 조작해 놓았으며 리 승만 《정권》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총검으로 비호하여 온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남조선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결연 궐기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엄중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서방 출판물들까지도 《리 승만이 남조선에서 정권을 잡은지 12년 간에 있어 가장 엄중한 위기》이며 《리 승만 정권을 위태로운 처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불안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적 봉기는 어찌하여 발생되였는가?

금번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은 해방 후 15년 간에 걸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적 반동 통치의 모든 악결과가 하나로 집중되여 폭발된 것이다.

바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며 그와 결탁한 리 승만 도당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아사히 신붕》까지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리 승만 정권을 반대하는 진출이며 그 원인은 남조선에서의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심각한 불만에 있다》고 썼던 것이다.

과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15년 간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중세기적 암흑 통치를 몇 배로 릉가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극악한 식민지 파쑈 통치는 남조선 인민들을 극도의 무권리에 빠뜨리고 남조선을 학살과 테로가 횡행하는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

미제의 무제한한 식민지 략탈 및 군사 기지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 정책은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탄시키고 농촌 경리를 황폐화시켰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말살 유린되고 갖은 사회악이 창궐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은 참으로 민족의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이루고 있다.

수백만의 실업 대중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겨우 일'자리를 얻은 로동자들도 대부분이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처지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

괴뢰 당국이 심히 과장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취업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에도 달하지 않는 기아 임금인데 이것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이 체불되는 현상을 리용하여 진행되는 로동자들에 대한 고리대적 중간 착취는 극심하다.

극도의 생활난에 빠진 실업자들 속에서는 《차라리 형무소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자살하는 참극이 련달아 일어나고 있다.

농민들은 농토를 략탈 당하고 수십 종의 가렴 잡세와 고리 부채로 말미암아 파산 몰락되였다.

추수 직후부터 농촌을 휩쓰는 절량과 기근은 매년 100만 호 이상의 농가를 포괄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걸머진 부채액은 호당 평균 7만 환에 달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이 산림을 란벌하고 관개 수리 시설을 파괴 방임하고 있는 결과에 자연 재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1959년 가을의 홍수와 태풍으로만도 100여만 명의 농민이 가장집물과 농토를 잃고 류리 걸식하게 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한 강제 징집과 취학난, 과학 탐구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고등, 대학 졸업생들의 취직난도 우심하다. 괴뢰 당국이 축소하여 공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학 졸업생의 취직률은 1956년의 30%로부터 1957년에는 25%, 1958년에는 20%로 계속 격감되고 있다. 《산업 경제 신문》까지도 졸업생들이 받은 졸업장은 《졸업장이 아니라 실업 련맹 가입증》이라고 썼다.

중소 기업가들은 미국의 독점 자본과 그 예속 자본에 의하여 시장에서 구축 당하고 원료난, 동력난, 자금난, 리 승만 도당의 과중한 세금 부하 등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모든 사태는 리 승만 괴뢰 정권과 광범한 인민 대중 간의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켰으며 리 승만 도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 빠진 리 승만 도당은 출로를 얻으려고 미제의 조종하에 파쑈적인 군사 경찰 기구를 확장하였으며 다른 한편 남조선에 조성된 파국적 상태를 은폐하고 인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하여 《남침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부질없는 전쟁 도발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기본은 전쟁 정책이며 민족 분렬 정책이다.

정전 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괴뢰군을 63만 명으로 격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인구에 대한 경찰 비례에 있어서 과거 일제 통치 시기를 훨씬 릉가하는 이름난 《경찰 국가》로 전변시켰다. 군사비, 경찰비는 1949년에 비하여 1957년에는 394배, 1959년에는 578배로 늘었으며 괴뢰 정부가 1960년도에 인민들로부터 략탈하려는 조세액은 1955년에 비하여 2.1배로 증가되였다. 예산 총액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에 29%이던 것이 1960년에는 58%로 격증하였다.

이리하여 그대로는 더는 살아 나갈 수 없는 생사의 기로에 선 남조선 인민들은 드디여 생존의 권리를 위한 항쟁에 궐기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휘황한 사회주의 건설 성과는 사회주의 제도의 무비의 우월성을 증시하면서 빈궁과 고통, 무지와 몽매의 암흑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평화 통일 정책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민족 분렬 정책과 그들의 반인민적 본질을 더욱 더 폭로하였다.

해방 후 15년 간 우리 당은 계속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출하여 왔다.

우리 당은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조선 문

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정당한 방안을 루차 제기하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모조리 거부하였다. 우리 당은 미제의 완강한 거부로 남북 정치 협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경제, 문화 교류를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서신 교환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다. 최근에 우리는 수차에 걸쳐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고통을 다소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 동포애적 원조를 줄 것도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이것마저 거부하였다.

우리의 이 모든 성의 있는 제의들을 계속 거부하여 온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통치하는 남조선의 상태는 어떻게 되였는가?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암흑과 무권리와 기아밖에 준 것이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들의 온갖 불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으며 이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게 되였다.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반부에 고향을 둔 재일 동포들이 남조선으로 돌아 가지 않고 사회주의 조국의 품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계속 오고 있는 사실은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와 아울러 자본주의 체계에 비한 사회주의 진영의 결정적인 우세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고무적 힘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을 새 생활, 새 정치, 새 지도를 요구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리 승만 통치하에서 인간 최하층의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참고 견디겠는가? 남조선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과 나아가서 전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고 이미 만신창이 된 리 승만 도당의 극악한 통치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는가?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은 지금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었다.

오늘 남조선 사태는 바로 남조선 인민들이 더는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견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날조된 《선거》도, 미국 침략 군대의 상시적인 주둔도 리 승만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벌써 무력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여 준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통치하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민주주의도,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권리도 얻을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이 반동 통치를 전복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비상히 제고되였음을 명백히 보여 주며 남조선에서의 혁명 발전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른 한편 남조선 인민들은 금번 투쟁의 불'길 속에서 부패 멸망하여 가는 리 승만 《정권》과 같은 것도 그것은 인민들의 손으로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저절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리 승만 파쑈 통치 기구도 궐기한 인민들 앞에서는 모래 우의 루각마냥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더욱 튼튼히 하고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인입하여 보다 완강히 투쟁하게 할 것이다.

남조선 시위 폭동자들의 투쟁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소위 《민의를 대표하는 한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떠들어 온 리 승만 《정권》이 인민들로부터 하등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극도의 증오를 받는 비법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완전히 폭로하였다.

그들이 항용 사용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뒤에는 미국의 총검을 배경으로 한 류혈적 독재가 숨어 있다.

금번 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장본인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리 승만 《정권》을 조작한 것도 미 제국주의자들이며 그것을 지지하고 괴뢰군을 만들어냈으며 그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킨 것도 다름 아닌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리 승만 《정권》은 미제의 지시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군 사령부의 지휘하에 있는 괴뢰군 제 15사단의 지휘권을 리 승만 도당에게 넘겨 줌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피바다 속에 잠그는 잔인한 학살 만행을 감행케 하였다.

엄연한 사실 앞에서 단죄되고 세계의 광범한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받게 된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류혈적인 대참극을 발생시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또다시 교활하고 파렴치한 책동을 하고 있다.

미 국무성은 리 승만의 학살 만행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위선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의의 투쟁에 나선 남조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장본인인 그가 모든 것을 리 승만 도당에게만 넘겨 씌우고 자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철면피한 시도이며 그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려는 극히 음흉한 간책이다.

남조선 인민의 교형리, 흡혈귀로서의 미제의 진면모는 완전히 폭로되였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을 학살하고 있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으며 세계 인민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리 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즉시 계엄령을 철회케 하고 봉기한 인민들에 대한 포악한 탄압을 중지시켜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자기의 의사 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온갖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미제 침략 군대는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물러 가야 하며 리 승만 통치 제도는 즉시 철폐되여야 한다. 만일 미제의 강점과 리 승만 반동 통치가 지속된다면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도 계속 전개될 것이며 더욱 치렬하여질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의 졸개들을 갈아 치우려는 어떠한 미봉책도 결코 현 사태를 수습할 수는 없다.

남조선에 조성된 긴박한 국면을 시급

히 타개할 수 있는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남북 조선의 각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합 회의를 소집하고 남조선 인민의 긴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해방 후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발악적 방해 책동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난 15년 간의 경험은 남북 간의 협상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북반부 민주 기지에 의거함이 없이는 모든 문제를 남조선 사람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의 본질과 리 승만 괴뢰 정권의 극도의 부패성이 철저히 폭로되였으며 그들이 고립될 대로 고립된 오늘 남북 협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남북 협상을 실현하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기들이 혁명적 민주 기지에서 구축하여 놓은 모든 귀중한 것, 경제 건설과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을 남반부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리용할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남북의 모든 애국적 력량은 협상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 요구——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주고, 로동자와 농민들이 북반부에서와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며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국가 장학금을 지불하며 기업가, 상인들에게 경영 활동의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전체 인민에게 국가 부담에 의한 무상 치료제를 실시하는 등——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은 하나로 단합되여 협상을 저애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물리치고 지체없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현 사태를 긴급히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완충기

신 영 빈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어난 일대 고조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비상히 촉진시키고 있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보장할 데 대한 과업은 벌써 1958년에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공업 분야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이 2년 이상 앞당겨 완수된 결과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 발전의 고질로 되였던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나라의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닦아졌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동안에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에로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다.

최근 년간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 분야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들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새로운 단계 즉 제 2차 5개년 계획에로 넘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조성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제 2차 5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시기로 된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며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력사적인 전환기에 림하여 우리 당은 1960년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의 완충기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을 조절하고 정비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제 2차 5개년 계획에로 이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완충기는 사회주의 건설의 한 단계(즉 제 1차 5개년 계획 시기)로부터 그의 새롭고 더욱 높은 단계(즉 제 2차 5개년 계획 시기)에로 이행하기 위하여 력량을 재편성하는 준비기이다.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러하듯이 경제 건설 분야에서도 매개의 커다

란 전환은 일정한 준비 사업 없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나라들의 당과 정부는 통례로 새롭고 큰 경제적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착수할 때마다 인민 경제에 조성된 형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지난 경제 건설 행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등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특정한 시기로서의 완충기는 경제 발전의 매개의 전환기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완충기의 설정은 경제 건설 분야에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그러면 왜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으로부터 제 2차 5개년 계획에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완충기를 설정하게 되였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의 결론에서 완충기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역시 경제 발전의 한 단계를 이루는 거대한 과업을 수행한 다음 새로운 단계의 과업 수행에로 넘어 갈 때에는 반드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새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준비 사업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년간에 우리가 계속 약진고투하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였으니만큼 우리에게는 이러한 준비 사업을 하는 시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완충기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과 관련되여 있는 동시에 완충기의 설정은 우리의 비약적인 발전 행정의 객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 건설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만반의 조건을 준비하는 우리 당 정책의 능동성을 구현하고 있다. 즉 완충기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의 류례없는 발전 속도를 이룩한 우리 나라에서 금후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부단한 앙양을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주동적인 조치이다.

그러므로 완충기의 필요성과 성격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완충기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어떠한 객관적 요구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해명하는 동시에 이 객관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 인민 경제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에 관한 문제를 옳게 처리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발전의 균형성을 유지함이 없이는 그의 높은 발전 속도를 생각할 수 없다. 동시에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는 변천되는 정세에 부합되게 균형을 부단히 변화 조절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속도를 위주로 하면서 이에 균형을 옳게 배합하는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성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최단 시일 내에 완성하며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투쟁에로 그들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경제 발전에서 미증유의 앙양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후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을 견결히 관철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의 전반적 부문들에서 **전면적이고 급속한** 앙양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원래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목표들은 례외없이 모든 경제 부문들에서 초과 달성되였다.

그러나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약적인 발전 행정 자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일부 경제 부문들 간의 발전 속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였다.

첫째,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전반과 그 개별적 부문들의 발전 속도는 축적의 장성 속도와 그의 부문 간 분배에 의존하기보다 더욱 많은 정도로 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생산 잠재력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1957년과 1958년에 전개된 《증산과 절약》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 지방적 예비의 동원에 의한 지방 공업 기지의 창설과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등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공업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공업 부문에서 195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대략 70%밖에 투하하지 않았는데 생산 수준은 5개년 계획 말에 예견되였던 수준을 115%로 릉가한 사실이 여실히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력사적으로 조성된 조건의 차이로 말미암아 부문마다 생산 잠재력(기술적 기초, 잠재하는 로동 부원, 생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등)이 각이하였던 조건하에서 인민 경제의 부문 간 상호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5개년 계획을 초과 실행하는 조건하에서 훨씬 빨리 나가는 부문과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가는 부문이 생기게 되였다.

이러한 행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전후 시기에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막대한 생산 잠재력을 동원하면서 년 평균 44.6%의 류례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공업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과 특히 지방 공업 기지의 창설은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 두 해 동안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도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년 평균 25% 이상에 달하는 매우 높은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원래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년도별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아직 주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하고 있는 기술적 기초의 락후성으로 하여 공업과 같이 높은 발전 속도를 계속 견지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당은 미증유의 대고조 속에 우리 인민 경제가 질풍과 같이 내닫는 행

정에서는 일부 경제 부문들 간에 일시적인 불합치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서면서 년초 계획 외에 증산 과제 또는 조절 계획을 작성하여 기동성 있게 부문 간 상호 관계를 조절하는 동시에 변경된 조건들을 세심히 타산하여 년간 계획들에서 물자, 로력, 재정, 자원들을 부문 간에 재분배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당은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보조를 맞추어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 협동화의 완성과 협동 경리의 통합 강화 등 생산 관계의 발전 분야에서 제때에 되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의 발전 분야에서도 수리화의 기본적인 완성, 뜨락또르를 비롯한 선진 농기계들의 대량적인 공급과 대형 농기계 생산을 위한 기초 축성 등 커다란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5개년 계획의 첫 3년 동안에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지출된 국가 투자 실적은 원래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투자 총액의 약 96%에 달하였다.

그러나 당이 이렇듯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 경제 부문 상호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였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부문 또는 측면들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우리가 달성한 찬란한 성과들은 결코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이 몇 해 동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고투하여 이룩한 것이다.

이 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였으며 축적 폰드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였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의 선차적 해결과 축적 폰드의 보다 급속한 장성은 바로 우리의 비약적인 발전 행정의 객관적 요구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실행의 전반적인 행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과업을 해결하는 열'쇠로 되는 공업화의 기초 축성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군중의 열의에 기술적 혁신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또한 《잘 살기 위하여, 남만 못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달려 나가며 달려 나가도 부족해서 더 빨리 달려 나가는》(김 일성) 우리 인민 대중 자신의 절박한 요구였다. 우리 인민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당 경제 정책의 총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 나라에 락후성과 침체성을 강요하려던 반당 반혁명 분자들과의 가렬한 투쟁 행정에서 자기의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서는 우선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더 축적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절실하게 체득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개된 군중적 운동(증산과 절약 투쟁, 지방 공업 기지 창설을 위한 군중적 운동, 쇠를 위한 투쟁, 수리화의 촉진을 위한 군중적 운동,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등)은 더 잘 살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다지는 운동이였던 것이다.

당은 제때에 이 절박한 요구를 포착하였으며 이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한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시켰다.

물론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이 선차적으로 해결되고 축적 폰드가 더 급속히 장성하였다는 것은 결코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과 소비가 소홀히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축적의 계통적인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비 폰드를 증가시키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에 기초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 향상 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벌써 1959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소득(인구 1인당)은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1961년 수준에 도달하였다. 로동자, 사무원 그루빠의 인구 1인당 중요 식료품 소비에 대하여 말한다면 1956년에 비하여 1958년에 육류는 1.6배 이상, 닭알은 약 4.7배, 수산물은 1.4배, 과실은 2배 이상으로 각각 올라 갔다.

오늘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중농의 수준에까지 제고되였다.

그러므로 공업화의 기초의 선차적 축성과 축적의 보다 급속한 장성은 다만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축적과 소비가 모두 급속히 나가는 조건하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건설과 축적이 더 빨리 나갔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축성할 데 대한 과업은 2년이나 앞당겨 완수되였는데 같은 기간에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과업까지 원만히 수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세째,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특히 1958년 이후의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다한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고 설비도 많이 설치되였으며 이에 따라 수 많은 로동자들이 새로 생산에 인입되였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생산 능력과 로동자의 수효가 급격히 증대되였기 때문에 조업 개시한 생산 설비들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으며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과 로동 생산 능률도 아직 응당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였다.

네째,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다른 중요한 특성은 이 행정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매우 급속히 완성되였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이러한 급속한 확립은 일방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게 되였으며, 타방에 있어서 상부 구조의 급속한 변혁을 요구하게 되였다.

특히 상부 구조의 일부 요소(지도적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 및 사업 수준 등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과 더욱 모순되게 되였는데 이것은 1959년 경제 사업에서 일부 당 및 경제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결함을 발로시킨 근원으로 되였다.

요컨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 경제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질적 변화, 경제 구조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에서는 그 구조상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현상으로 되고 있다(물론 이것은 그 발전이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구조의 점차적 변화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특수한 길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바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후 불과 4~5년 내에 완성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변혁과 5개년 계획의 첫 3년 동안에 완수된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의 구축 그리고 1958년 하반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극히 짧은 기간에 련이어 수행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과 기계 제작 공업의 혁신, 지방 공업 기지의 창설, 수리화의 기본적인 완성 등은 실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의 진정한 혁명이였으며 나라의 경제 구조에서의 커다란 질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가 이와 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조건하에서 그의 모든 부문 또는 측면이 일시에 또 완전히 변경된 조건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행정은 불가피하게 일부 경제 부문(또는 측면)들의 발전에서 일정한 차이를 발생시켰다.

우리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일부 경제 부문들에 조성된 이러한 불합치는 물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 행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 경제의 비상히 빠른 발전 속도 자체가 웅변으로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인민 경제의 개별적 고리에 조성된 이러한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때에 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인민 경제의 계속적인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경제 건설의 한 단계의 과업을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한 오늘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을 조절하고 정비할 데 대한 문제를 경제 건설에서 당면한 중심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 완충기의 필요성을 규정한 객관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날 인민 경제의 발전을 조절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만으로 완충기의 필요성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는 없다.

사실 경제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그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시기를 설정함이 없이 경제 건설의 다음 단계에 가서 다른 과업과 함께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완충기라는 특정한 시기를 설정한 것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경제 건설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다. 즉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완충기의 설정에는 우리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의 객관적인 요구와 경제 발전 행정에 대한 당의 능동적인 작용이 결합되여 있다.

동시에 완충기는 비록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장엄한 천리마 행군의 계속인 것이며, 지난 고조기의 요소와 함께 새로운 고조기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부단한 대고조의 한 고리이다.

2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완충기의 중심 과업은 지난 시기 특히는 1959년 계획 실행 행정에서 일부 경제 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완충기의 이 중심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경제 분야에서 완충기에 해결하여야 할 중요 과업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며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건설을 적게 진행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로써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며 외화의 획득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과업들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원 회의는 또한 변천된 환경에 적응하게 당,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개편하며 그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급속히 제고할 중요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완충기에 당이 제기한 이러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의 해결은 비단 1960년의 경제 사업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이 제기한 완충기의 첫째가는 중요 과업인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농촌 로력 발란스의 당면한 긴장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의 의의가 여기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이다.

이것은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현 시기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 관계와 수공업적인 농업 기술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본 고리이며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사상 의식의 개변과 농촌 문화 혁명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은 또한 급격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 세우며 공업과 농업 간의 장구한 균형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공업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하는데 농촌 경리는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공업의 요구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그리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도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급속히 발전시키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전반적 부문들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농업 기계화의 거대한 과업이 한 해 동안에 완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완충기에 취해지는 대책은 비단 그것이 농업 기계화에서 거보의 전진을 이룩한다는 의미에서 뿐 아니라 또한 최단 기간 내에 그를 완수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는다는 의미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완충기에 인민 생활 향상 분야에서 당이 제기한 과업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3년 간 악전고투하여 5개년 계획을 2년 이상이나 앞당겨 완수한 우리 인민에게 이제는 부식물도 더 마련하여 주고 집도 더 지어 주어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은 5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인민들이 직접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무한히 고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성된 물질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더욱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가져 오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당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현명한 정책과 축적과 소비의 옳바른 조절에 기초하여 인민들에게 생산의 장성이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확정적으로 보여 준 그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도의 하나는 생산 내부 예비의 최대한의 동원이다.

따라서 이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 경제가 계속 급속히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이룩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가 증산과 절약을 위한 군중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업 부문에서 새 건설을 적게 진행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여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데 대한 전원 회의 결정의 의의는 스스로 명백하여진다. 김 일성 동지는 1959년 11월 11일 당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금번 전원 회의는 1956년 12월 전원 회의와 비슷한 의의를 가진다. 12월 전원 회의는 3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5개년 계획에 들어 가기 전에 열렸다. 그 때 형편이 지금과 류사하다.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장은 많이 건설해 놓고 로

력도 증가되였는데 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그 때도 조직 사업을 잘 한 결과 생산이 급격히 올라 갔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장도 많이 건설했고 설비도 많이 갖추어 놓았으며 로동자의 수도 불었으나 기술 수준은 낮고 설비 리용률도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사업을 잘하고 설비 리용률을 높이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인다면 1957년과 같이 생산이 올라 갈 것이다».

외화의 획득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은 현 시기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완충기에 제기된 인민 생활 향상 과제와 인민 경제 발전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장래 발전의 견지에서도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는 이미 창설된 자립적인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국제 분업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화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의 발전 속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되는바 전원 회의가 강구한 대책들은 이 긴절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축성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이룩된 대고조가 보여 준 기본적인 교훈의 하나는 대중들의 혁명적 의식을 제고하여 그들의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빨리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는 이 경험을 총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성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대고조의 경험은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그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한 투쟁에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당의 령도가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혁명적 의식을 더욱 제고하여 그들의 앙양된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계속 견지하며 이에 당의 령도를 더욱 훌륭히 결합시키는 것은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맞이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원 회의가 취한 혁명적인 대책은 바로 이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예봉이 돌려지고 있다.

전원 회의와 그 후 강서군 당 단체들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에서 강구된 대책들의 거대한 의의는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생산력이 미증유의 속도로 발전하며 기술 문화 혁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당,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개편하고 그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며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

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관적 요인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는 거기에 있다.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이후 공업 전선과 함께 우리 나라 농업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고조는 당이 취한 대책들의 거대한 생활력을 생동하는 사실로써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요컨대 완충기에 당이 제기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가져 온 그러한 주객관적 요인들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더욱 훌륭히, 더욱 전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금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기대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3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완충기의 정책으로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하나인 속도와 균형에 관한 문제를 우리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 발전의 속도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며 경제 발전에서 개별적인 락후한 나라들이 선진 국가들의 수준을 따라 잡는 문제는 결국 속도 문제에 귀결된다.

그런데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균형성을 전제로 한다.

오직 인민 경제의 각이한 부문들과 각이한 측면들이 균형성을 유지함으로써만 물자, 로력, 재정, 자원의 가장 합리적인 리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속도와 균형은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서로 모순된 측면도 가지고 있는바 그것은 높은 속도가 잘 조화된 균형성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균형의 급속한 변화 즉 한 균형의 급속한 파괴와 새로운 균형의 급속한 형성을 요구한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속도와 균형을 옳게 배합하는 문제는 항상 맑스—레닌주의 당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경제 건설의 력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혁명적 관점과 기회주의적 관점 간에 심각한 투쟁이 전개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균형을 절대시하고 약한 고리에 맞추어 균형을 잡으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결정적으로 배격하였으며, 균형을 속도에 복종시키는 동시에 높은 속도를 위하여 균형성에 전면적인 고려를 돌리는 철두철미 혁명적이고 고도로 신축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속도와 균형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에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였다. 마치 사물의 운동과 발전이 절대적이고 통일은 상대적인 것과 같이 속도와 균형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속도가 절대적이고 균형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발전이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종속되여야 한다는 그 객관적 요구의 표현이다. 동시에 경제 발전 속도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더욱 훌륭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상응하여 인민 경제 발전의 균형성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요소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를 극력 조장 발동시킴으로써 력사적으로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형식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는 원래 경제 발전이 락후했고 전후 시기 형편은 몹시 어려웠지만 그와 반면에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 인민의 높은 혁명성, 풍부한 자원 등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김 일성 동지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비록 옷을 허술하게 입고 집은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지만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하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이 높은 혁명성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고조를 불러 일으켰으며 경제 발전의 류례없이 높은 발전 속도를 달성하였다.

경제 발전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당은 또한 인민 경제 발전의 균형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인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 로선은 바로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였다.

인민 경제의 계획화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변천되는 조건에 부합되게 계획 과제를 기동성 있게 조절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체계적이고 다방면적인 대책들은 우리 당이 경제 발전의 균형성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심각한 고려를 돌려 왔는가를 확증하여 준다. 이것은 또한 인민 경제 발전의 균형성 문제에 집중적인 고려를 돌리고 있는 완충기의 정책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완충기——이것은 우리 당 정책의 높은 원칙성과 창조성의 생동한 구현이며 그가 낳은 위대한 산물이다.

대중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

최 정 현

대중 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 사업을 지도하는 것——이것은 우리 당 지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난 기간 시종일관 견지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가끔 망각한다. 얼마 전에 일부 일'군들 속에는 우리 당이 허풍치기를 반대한다 하여 그것을 잘못 리해하고 대중 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이다. 허풍치기는 없애야 하나 대중 운동은 계속 그리고 더욱 힘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대중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분산적으로가 아니라 광범한 대중적 범위에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발동되여 서로 앞을 다투어 그 기세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운동 형태를 말한다. 이 운동의 특징은 대중 자신이 단합된 자기의 힘에 의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에 궐기하는 데 있다. 즉 《군중이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투쟁으로써 견지하고 관철》(김 일성)하는 집단적 운동이라는 데 그 기본 내용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중 운동은 대중 자체의 발동과 당의 령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대중 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는 맑스—레닌주의의 근본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민 대중이 력사의 창조자라고 가르친다. 비록 대중이 압박 받고 착취 받던 계급 사회에 있어서조차도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킨 것은 인민 대중이였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수백만 사람들의 지혜와 그 창조력은 가장 천재적인 사람들의 예견보다도 비할 바 없이 위대한 그 무엇을 만들어낸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중들이고 그들 자신에 의해서만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건설될 수 있다. 그들의 념원은 언제나 력사 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법이다. 당 정책도 그들의 혁명적 열정과 의사를 반영하는 한 정당하며 그들의 념원을 실현하는 것은 곧 혁명 발전의 방향으로 된다.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거하며 그들이 자기의 지향과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동되여 혁명 투쟁에 나서도록 대중 운동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의 확고한 원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의 힘은 가장 위대하며 그의 창조력은 무궁무진하며 대중만이 새 생활의 창조자라는 것, 바로 그러하기에 맑스주의 당은 대중의 이 혁명적 적극성과 창조력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그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도의 원칙으로 삼는다. 대중 운동 전개의 리론적 근거는 바로 이러하다.

그러면 대중 운동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얻으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말하자면 대중 운동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대중의 단합된 힘은 분산된 개개의 로력의 기계적 집계보다도 비할 바 없는 거대한 힘을 산생시킨다. 그것은 마치 개인농 경리에 비한 집단 경리의 우월성과도 같다. 대중 운동은 대중의 자각성과 열정에 기초하고 있는만큼 일부 책임 일'군만이 아니라 이 운동에 망라된 일체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시키고 그들의 열의를 최고도로 앙양시킨다. 이것은 과거에 파묻혔던 수백만 사람들의 창조력과 지혜를 한데 뭉치게 하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 많은 《기적》들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 당의 력사——대중의 실천적 활동과 당의 령도가 결합된 력사——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대중 운동은 그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수십년이 걸려야 한다고 여겨 왔던 것을 몇 년 혹은 몇 달 사이에 해결해낸다. 과거에는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였다. 얼마 전만 해도 그것들을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여 오늘처럼 국내 수요에 수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였던가? 그러나 대중 운동의 위력은 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불도젤, 전기 기관차와 같은 중형 기계들을 생산하는 것이 조금도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대중 운동의 위력에 의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 앞당길 수 있었으며 락후한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 있었다.

대중 운동의 위력은 분산된 개별적 력량으로는 도저히 극복 못할 난관을 쉽사리 해결한다. 혁명은 새 것의 창조이다. 새 것의 창조는 반드시 곤난과 낡은 것의 장애를 받는 법이다. 더우기 우리는 과거 락후했던 자리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한 것만큼 우리에게는 특별히 많은 곤난과 애로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단결된 력량으로 《하겠다》고 한 번 결심하고 한결같이 나선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오직 대중 운동만이 어려운 난관을 뚫게 할 집단적 영웅주의, 대중들의 고도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일찌기 레닌은 중첩되고 서로 엉켜 있는 곤난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의 영웅적 창발성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이 발단된 시기도 국제 국내적으로 곤난한 정세가 조성된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당은 경제 건설의 제반 난관을 타개할 데 대하여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였으며 그들을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에로 궐기시킨 결과 경제 발전에서 전례 없는 일대 앙양기를 열어 놓았다. 그리고 경험은 당의 유일한 의지로 향도된 대중 운동의 거센 물'결 앞에서는 일체 낡은 오물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례하면 당 경

제 정책에 대한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이러저러한 시비가 대중들의 천리마 운동의 거센 파도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낡은 사상 개조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대중 운동의 불'길 속에서 낡은 시대에서 물려 받은 사상 잔재는 급속히 극복되고 대중은 놀랄만한 속도로 새로운 사상 의식으로 무장한다. 우리는 천리마 운동이 전개된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대중들의 의식 수준과 각오 정도가 얼마나 높아졌으며 그들의 정신—도덕적 풍모가 얼마나 급변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다. 속담에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 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한 번 실천하는 것은 열 번 보는 것보다도 더 낫다.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은 선전에 의해서보다 대중들 자신의 실천 활동과 체험을 통하여 더 잘 배울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과 도덕적 품성이 매일과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일부 락후한 사람들, 동요 분자들도 대중 운동의 영향하에 속한 시일 내에 개조된다. 그들은 당의 령도하에 대중 운동이 거창한 위력을 발휘할 때 바로 이 대중 운동에서 과연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강력한 우리 힘을 믿고 따라 온다.

대중 운동은 고도의 경쟁을 동반한다. 경쟁은 본질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 진보적인 것, 새 것이 발현되고 발전되는 과정이다. 경쟁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 우수한 것이 승리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것은 뒤로 물러 선다. 경쟁이 단병접전식(單兵接戰式)이 아니라 대규모적일수록 그러한 과정은 더욱 빨리 촉진된다. 이로부터 어찌하여 수 많은 평범한 군중들 속에서 온갖 새로운 것, 긍정적인 것들이 대중 운동을 통하여 무수히 발현하게 되는가를 리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것들은 오직 대중 운동을 통해서만 순식간에 그 경험이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급속도로 일반화될 수 있다.

대중 운동 속에서의 경쟁의 앙양, 긍정적인 것의 충분한 발휘, 선구자들의 모범의 보급과 그것의 부단한 확대 등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개인적 재능들은 최대 한도로 발휘된다. 맑스—레닌주의는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결코 재능 있는 개인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개인이 대중에게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대중의 실천적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된다. 우리의 대중 운동은 과거에는 평범하게 보이던 많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수 많은 로력 영웅들과 혁신자들 그리고 천리마 기수들은 결코 뛰여난 천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며 특별히 건장하게 생긴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대중 운동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중 운동이 발전할수록 이 대렬은 부단히 확장된다. 앞서 나간 기적의 창조자는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 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혁신자들을 따라 잡고 새로운 기적을 낳는다. 이리하여 이것이 부단히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생산 기술의 발전, 로동 생산 능률의 전반적 제고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대중적 혁신 운동의 장엄한 흐름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부단한 혁신과 부단한 전진의 매개 고리들로 된다.

때문에 부단 혁명의 실현은 바로 대중 운동을 계속 꾸준히 전개하며 그 운동을 부단히 높은 발전 단계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하나의 변혁을 끝마치고 계속 새로운 변혁 수행에로 나아가는 과정은 대중 운동이 한 형태로부터 보다 새로운 형태로 계속 이행하고 발전하는 과정과 결부되고 있다. 대중 운동의 이러한 부단한 전개와 높은 형태에로의 발전이 없이는 부단한 혁명적 변혁도 불가능하다. 우리 당의 력사를 보라, 정전 후만 해도 계속적으로 수 없이 진행된 많은 변혁들,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새로운 생산 관계에 기초한 생산력의 급격한 앙양,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상 의식의 급격한 변혁 등 이 모든 것은 부단히 발전 강화되는 대중 운동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었다.

그러면 대중 운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우리 당은 항상 대중 운동 지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편향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대중에 대한 교양은 하지 않고 대중이 의식하건 말건 상관 없이 무턱대고 명령과 호령의 방법으로 대중 운동을 조직해 보려는 현상과 대중의 뒤꼬리만 따라 가는 소극적 태도이다.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며 너무 완만해서도 안 된다. 대중을 참말로 동원하려면 그들 속에 들어 가서 그들의 의식 수준과 자각 정도, 그들의 지향과 요구 등을 충분히 료해하고 그들 속에서 당 정책을 생동하게 침투시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대중 자신이 발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수행하려 하는 개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관심과 자각적 태도를 더 높여야 하며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뒤를 이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더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전집, 제 31권, 615페지).

그러나 모든 곳에서 대중 운동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중을 각성시키고 발동시키지 못한 채 대중 운동을 전개하려고 시도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데서는 대중의 진정한 힘이 나오지 않고 적지 않은 경우에 허풍치기에 그치고 만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사무실에 틀만 차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회의나 하고 일반적 지시나 내리고 쓸데 없는 문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대중 속에 들어 가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중 자신이 발동만 되면 운동이 저절로 잘 되여 나가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대중 운동을 끝까지 추진시키려면 이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지도 없는 대중 운동은 운전수 없이 망탕 달려 가는 차와 같다. 당의 확고한 령도만이 대중 운동을 옳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지름'길을 따라 나가게 한다.

대중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운동의 목표를 옳게 세우는 것은 극히 필요하

다. 목표를 옳게 세운다는 것은 투쟁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주며 이 방향에로 대중들의 력량을 조직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가 정확할 때에만 대중들도 명백한 전망을 바라 보고 확신성 있게 내달릴 수 있다. 또한 그럴 때에만 그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높은 투쟁 단계에로 나가려는 의욕과 투지, 열정을 갖게 하며 더욱 큰 용기를 가지게 한다. 물론 망탕 포를 쏘아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목표를 정확히 세웠다고 인정되면 주저 없이 쏘아야 한다. 안 맞을가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안 맞으면 그 경험에 의거하여 표준을 바로 잡고 또 쏘면 그 때에는 비교적 정확히 맞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경제 건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대중 운동의 방향을 옳게 수립하고 일단 수립한 후에는 정확한 해결 방도를 강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가 해결되면 지체 없이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워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 운동이 부단히 앞으로,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대중 운동 지도에서의 당적 령도의 주요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이 혁명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전진하는 이 위대한 력량이 잠시라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 전진의 방향을 가리켜 주며 이끌어 주며 계속 혁명에서 새로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중 운동 가운데서 발생되는 새로운 맹아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매우 미미하여 평범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정력적으로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것은 처음부터 반드시 강력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방금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나 낡은 것은 남아 있어 일정한 기간 새 것보다 강하다. 때문에 이 새 것의 맹아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에 신중하게 대하며 백방으로 이것을 도와 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경쟁적으로 따르도록 일반화하며 보급하여야 한다. 일부 일'군들이 그러하다싶이 대중 운동이 아무런 장애를 겪지 않고 전혀 순탄하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와 충돌하는 것도 많아지는 법이다. 낡은 규정, 낡은 형식, 낡은 틀 등이 이러한 장애물에 속한다. 우리는 낡은 규정, 낡아진 공식과 틀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까다롭게 굴며 새로운 사업의 진척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을 가끔 보게 된다. 지어 일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장애로 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미 오랜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통례로 그렇게 해 온 것이라고 해서 낡은 것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고집하는 낡은 형식과 틀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때문에 대중들이 자기들의 운동으로 낡은 틀을 마사 버리는 데 대하여 당황해서는 안 되며 더우기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일어난 인민들의 천리마 행군 도상에서 보수주의자와 소극 분자들이 방패로 삼았던 낡아 버린 지표와 공칭 능력을 분쇄하고 수다한 기적을 낳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계

속 살려야 한다.

대중 운동을 더욱 앙양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 낡은 사업 작풍,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을 극복하고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는 문제이다. 일'군들의 이러한 낡은 사업 작풍은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속박한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우로부터의 명령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정신은 관청적—관료주의적, 기계적 행위와는 인연이 없다. 생동하는 창조적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 자신의 창조물이다》 (전집, 제 26권, 360페지). 이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은 항상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창발성을 자유로이 발동시킬 줄 알아야 한다. 대중들 자신이 생각하며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의 혁명적 열정,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 한도로 발휘케 할 수 있겠는가?

김 일성 동지는 《제일 총명한 자는 생산자이다. 기계를 깎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입을 열게 하여야 한다. 매개 지도 일'군들은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들이 입을 열어 자기의 의견을 제때에 말하도록》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때문에 강서군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후 많은 지도 일'군들이 대중에 대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자 대중의 기세가 급격히 높아져 모든 곳에서 대중 운동이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 서고 있는 오늘의 이 현상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왜 귀중한가?

로 병 훈

청산리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가 있은 이후 전국 농촌에서는 일대 전변이 일어났다. 이 전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로동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가 보다 새로와진 그것이다.

보다 새로운 태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고도의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였으며, 저마다 힘든 일에 앞장 서려 하며, 서로 도와 주며 《조합 일이자 내 일》이며 《내 것이자 조합 것》이라고 하는 기풍이 조성된 것이다.

요컨대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성과 헌신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이것이 전 군중적인 현상으로 된 그것이다.

오늘 청산리에서는 수 많은 부양 가족들, 지어는 70이 넘은 로인들까지도 조합 일에 떨쳐 나섰다. 가동률은 종전의 70% 내외로부터 99%에까지 올라 갔다. 사람들은 일에 성수가 나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뛰다싶이 하며 로동 규률이 준수될 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을 알리는 종도 필요 없을 정도이다. 청년들은 모두다 매일 300% 이상의 작업 능률을 내고 있으며, 일에 신이 나니 《요새는 암만 일해도 고달픈 줄 모른다》고 모두들 말한다. 당원들, 민청원들은 어데서나 앞장에 서고 있다.

이리하여 자급 비료를 마련하며, 새 땅을 얻어내며, 파종 면적을 확장하는 등등에서 허다한 예비들이 탐구 동원되였다. 김 일성 동지가 현지 지도하기 전에는 석달 동안에 겨우 1,000 여톤의 거름을 장만하였다면 그 후 불과 한 달 반 동안에만도 2,000 여톤의 퇴비를 장만하였다. 이리하여 금년에는 농사 차비를 례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훨씬 실속 있게 하면서도 관개 수로의 둑과 제방을 수축하는 등 숫한 일들을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현지 지도의 소식은 강서군 내 다른 리들에는 물론 전국 각지에 번개같이 퍼져 나가 도처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태도로 일떠 섰으며 혁신적인 성과들을 쌓고 있다.

로동에 대한 농민들의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김 일성 동지가 청산리에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작업반 상금제를 실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이 잘 집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을 잘하고 더 많이 한 사람, 더 힘든 일을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일에 건달을 부리며 대강대강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 김 일성 동지의 지도가 일에 대한 농민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고 태만 분자를 없애는 데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로동에 대한 농민들의 새로운 태도를 낳은 원인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이 주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때에 내 어찌 앉아만 있겠는가》하고 떨쳐 나와 조금이라도 조합 일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칠순 로인, 《보모(保母)일은 나보다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자진하여 퇴비 수집에 나선 어머니의 심정에서 과연 물질적 관심만을 찾아 보겠는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뛰다싶이 하는 조합원들, 요사이는 아무리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년말에 가서 자기가 받을 분배 몫의 크기와 상금에만 고무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청산리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로동에 대한 높은 각성을 계발하여 창조적 열정의 도가니 속에 집어 넣은 것은 무엇보다도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가 준 정신—도덕적 자극이였다. 수상 동지는 친히 조합 경리와 리민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보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리 당과 조합 관리 위원회 그리고 군 당과 군 인민 위원회의 사업에서 걸려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었으며 조합원 군중으로 하여금 자기들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역군이 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일깨워 주었다.

당과 대중과의 사이를 가로 막고 있던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퇴치되고 농촌의 새 환경에 맞게 당,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가 바로 잡히고 사업 방법이 개선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이 일신되였다. 이리하여 당, 정권 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당 정책, 당 중앙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되였다.

수상 동지의 인민적 지도 작풍과 령도 예술은 청산리 사람들을 격동시켰으며 그들의 정치—도덕적 각성을 제고하였다. 우리의 새 제도하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동시에 조국을 번영하게 하며 전체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였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도덕적 의식을 제고하여 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화해 준 도덕적 자극이야말로 청산리 사람들을 창조적 로동에로 들끓게 한 주되는 힘이 아닌가! 그들은 분배 몫을 생각하기 전에 조합의 일, 당의 뜻을 생각하며 이것을 나라의 번영, 혁명의 승리와 결부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식, 이러한 태도가 농민들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움튼 것은 아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미 당의 호소를 받들어 불과 6개월 동안에 37만 정보 이상의 관개 면적을 확장한 그런 농민들이다. 물질적 관심성만으로는 이러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

앙 위원회의 령도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움직일 수 없는 신조로 되여 있으며 사회주의 새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지배적인 의식으로 되여 있다.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농민들이 당과 조국에 대한 헌신성과 집단주의적 의식을 더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계기로 되였으며 이 헌신성을 고스란이 창조적 로동에 쏟아 바치게 하는 거대한 충격으로 되였다.

청산리와 전국의 농민들 속에서 일어난 로동에서의 새로운 혁명적 앙양은 우리 농민들의 정치—도덕적 의식이 어떤 높이에 도달하였으며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에서 정신—도덕적 자극이 어떤 위력을 가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로동의 사회적 의의와 공동의 리익에 대한 높은 자각성을 보여 주는 전체 농민 대중의 새로운 태도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그것은 왜 귀중한가?

수천 년에 걸친 착취자 사회의 유물인 로동에 대한 낡은 태도——로동을 다만 자기 가족의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고역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태도로써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오직 사회와 조국을 위한 자각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행정에서 새로운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은 절대적인 요구이다. 그 요구를 무엇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가? 최대의 예비는 오직 대중의 의식성에 있으며 로동에 대한 그들의 공산주의적 태도의 발전에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힘의 최후의 원천은 대중의 의식성이라고 레닌은 언제나 강조하였다.

우리 로동 계급을 비롯하여 전체 농민들, 전체 근로 대중이 지금 로동에 대한 낡은 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각성과 헌신성을 무한히 높이는 것, 이것은 바로 새로운 전진, 새로운 비약을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우리는 몹시 뒤떨어진 처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시작하였으며 모든 것이 파괴된 페허 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려 한다. 우리에게 류달리 애로와 난관이 많고 곤난한 과업들이 련달아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이 높은 목표, 방대한 과업을 제기할 때 당을 믿고 당의 부름에 모든 힘과 지혜와 정력을 바치는 근로자들의 애국적 헌신성, 힘든 일에 앞장 서려는 영웅성이 없다면 무엇으로 이 목표, 이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일부 선진 부대들의 헌신성과 영웅성만으로는 안 된다. 전체 근로자 대중이 천리마의 기수들과 같은 높은 의식성과 로동에서의 애국적 헌신성, 영웅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 광범한 농민 대중이 로동에 대한 이러한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일떠섰다. 그들 속에서의 가장 큰 예비가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의심할 바 없이 오늘의 성과만이 아니라 래일의 승리, 앞으로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자각적이고 헌신적인 로동은 비단 생산력 발전의 속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낸다.

오늘 우리 사회는 로동에 대한 높은 자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태도를 백방으로 배양하며 이를 위하여 로동에 대한 정신—도덕적 자극의 역할을 더욱더 높일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이 지금 보수 없는 로동, 보수를 타산하지 않는 로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며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사회주의적 분배의 역할을 저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하에서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로동에 의한 분배는 유일하게 가능하고 정당한 분배 형식이며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은 착취자 사회에서의 물질적 욕망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이것을 리기주의의 잔재——일은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는 경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질적 관심성 원칙의 구현인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건달 습성을 없애고 성실한 로동을 장려하는 길이며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다. 이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은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오유를 범할 수 있게 했다.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적용은 또한 로동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로동의 사회적 의의를 용이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며 그들을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헌신성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으로 교양하는 길로도 된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며 생활 자체가 최대의 교양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질적 관심을 충족시킴이 없이 도덕적 자극만으로써는 계속 꾸준히 대중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할 수 없다. 물질적 자극과 정신—도덕적 자극을 정당하게 결합하며 통일시키는 데서만 전체 공민들을 유용한 사회적 로동에 인입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능력껏 일하는 습관을 배양할 수 있으며, 물질적 부의 풍요를 최대한으로 빨리 조성할 수 있다.

그런즉 우리는 물질적 관심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계속 도덕적 자극——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청산리에서의 전변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산리는 대답을 주고 있다. 공산주의 교양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위력한 것은 긍정적 모범의 힘이다.

근로자들, 더우기 농민들 속에서는 아직 락후한 것, 낡은 사회의 잔재가 적지 않다. 이것을 없애는 데는 비판의 방법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이다.

사람들을 부패 타락시키며 부정적 측면들을 조장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청산된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단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의욕은 부단히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모범——새로운 것, 진보적인 것, 우수하고 훌륭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동을 주고 있으며 그것을 따라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념원을 북돋아 주고 있다. 레닌은 《정권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넘어 간 후 모범의 힘은 비로소 자기의 대중적 작용을 표시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전집, 제 27권, 323~324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비판이 직접적으로는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방법이라면 모범에 의한 교양은 긍정적인 것——새롭고 진보적인 것을 계발하며 강화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낡은 것, 부정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보다 위력한 방법으로도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청산리에서 일'군들과 조합원들을 교양하였다. 그들을 설복하고 깨우쳐 주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새롭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포착하여 적극 계발함으로써 조합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인 로력 투쟁에로 일떠 서게 하였다.

긍정적인 모범에 의한 교양에 있어서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투쟁 정신으로의 교양은 가장 귀중하고 기본적인 문제이다.

항일 빨찌산들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의 모범은 황철의 용광로 건설자들, 해주—하성간,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자들에 있어서와 같이 전국의 생산 직장, 건설장,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근로자들을 영웅적 로력 투쟁에로 고무 격려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거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 *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싹은 로동 계급 속에서 허다하게 자라나고 있으며 농민들 속에서도 이제 움트고 있다. 이 싹을 백방으로 자래우는 것은 계속 혁신, 부단한 전진을 위한 으뜸 가는 예비이다. 이를 자래우기 위해 정신—도덕적 자극, 공산주의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물질적 자극과의 유기적 결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 제 4호 (루계 173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1960년 4월 15일　　인 쇄•1960년 4월 10일

ㄱ—31186　　값 50 전

서 적 안 내

레닌 탄생 90주년 기념 출판

레닌 전집 제 36권

4×6판, 예정 페지 890페지, 예정 값 1원 90전,
발행 부수 12,000부, 발행 예정 4월.

이 권에는 레닌 전집 제 4판에서의 첫 보충권 으로서 1900~1923년에 쓴 레닌의 편지들이 주로 수록되여 있다.

1900~1904년의 편지들은 첫 전 로씨야적인 비합법적 맑스주의의 신문 《이쓰크라》와 잡지 《자랴》의 창간을 위한 레닌의 다방면적 활동과 《합법적 맑스주의》와 경제주의를 반대하는 레닌의 투쟁을 보여 주며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제 2차 대회 이후 멘쉐위크들의 분렬적, 파괴적 활동을 반대하는 레닌의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1905~1907년의 편지들은 제 3차 당 대회의 소집과 그 결정 수행을 위한 레닌의 활동을 보여 준다.

반동 시기의 제 문헌은 제네바에서의 신문 《프로레타리아》의 복간과 중앙 기관지의 사업 개선을 위하여 레닌이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는가를 보여 주며 공개적 청산파와 숨은 청산파를 반대하며 맑스주의 당의 리론적 기초를 외곡하려는 기도를 반대하는 레닌의 투쟁을 보여 준다. 일련의 문헌들은 국제 사회주의 뷰로에서의 레닌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제 1차 세계 대전 시기의 많은 서한들은 당 중앙 기관지 《쏘찌알—데모크라트》의 복간과 국제주의자들의 단결에 바쳐지고 있으며 로씨야 사회 민주당과 국제 사회 민주당 내 사회 배외주의와 중앙주의를 폭로하고 있다.

레닌 전집 제 37권

4×6판, 예정 페지 940페지, 예정 값 2원,
발행 부수 12,000부, 발행 예정 4월.

이 권에는 1893~1922년에 레닌이 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 전보들을 수록하였다. 본 권의 편지는 도합 274통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편지를 통하여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스승인 레닌의 풍모를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레닌, 그의 선명하고도 다면적인 개성, 그의 생활 방식, 습성, 취미, 대인 관계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4월